

SGRA REPORT

SGRA 보고서 No. 94 한국어판

NO. 94

ISSN 1346-0382

第65회 SGRA-V 포럼

제5회 한국 · 일본 ·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19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



제 5 회 한국 · 일본 ·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19 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

■ 포럼의 취지와 경위

아쓰미 국제교류재단은 2015 년 7 월, 제 49 회 SGRA(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 포럼을 개최하면서 ‘동아시아의 공공재’ 및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우선 동아시아에 ‘知的 공유공간’ 혹은 ‘知的 플랫폼’을 만들고, 이로부터 화해로 이어지는 지혜를 만들어 동아시아에 공급하는 것의 의의를 확인했다.

이 플랫폼에 ‘국사들의 대화’ 코너를 설치한 것은 2016 년 9 월의 아시아 미래회의를 기회로 개최된 제 1 회 “국사들의 대화”였다. 지금까지 3 개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각국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국사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대화는 심화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우선 동아시아의 역사대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을 찾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타니 히로시 교수(도쿄대 명예교수), 거자오광 교수(푸단대 교수), 조광 교수(고려대 명예교수)의 강연을 통해, 세 나라의 여러 ‘국사’ 연구에서 동아시아의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검토했다.

제 2 회 대화에서는 자국의 역사와 국제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몽골침략과 13 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라는 테마를 설정했다. 2017 년 8 월, 한국 · 일본 · 중국 · 몽골 등에서 11 명의 국사 연구자가 기타큐슈에 모여, 각국 국사의 시점에서 연구발표를 행한 후, 동아시아 역사라는 시점에서 조공책봉의 문제, 몽골사와 중국사의 문제, 사료를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연구는, 동아시아 전체의 움직임에 주목한다면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개개의 나라와 사회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었다.

제 3 회 대화에서는 ‘17 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주제로 설정했다. 2018 년 8 월, 한국 · 일본 · 중국에서 9 명의 국사 연구자가 서울에서 모여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만주의 흥타이지에 의한 조선침공 및 그 배경에 있는 은 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긴밀한 경제관계, 전란 후의 안정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세 차례의 국사 대화를 되돌아보면서 다음 단계로 이어가기 위해, 와세다대학이 주관하는 ‘화해를 향한 역사가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검증’이라는 패널 토론이 개최되었다.

제 4 회 대화에서는 ‘동아시아’의 탄생: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이라는 테마로 2020 년 1 월에 필리핀 마닐라시 근교에서 한국 · 일본 · 중국의 국사 연구자들이 모여 각국의 ‘서양에 대한 인식’, ‘전통에 대한 도전과 창조’,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서 발표하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 5 회 대화는 ‘19 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을 테마로 하여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인 2021 년 1 월에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19 세기에 감염병 문제를 각국이 어떻게 인식했고, 또 어떻게 대응책을 준비했는지를 검토하고 각국의 상호협력과 그 한계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각국 발표자의 논문 발표와 함께 지난 4 회에 걸친 회의 참여자가 패널리스트로 다수 참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Zoom 웨비나라는 플랫폼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전개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되었다. 또한 원활한 대화를 위해 한국어⇔일본어, 한국어⇔중국어, 일본어⇔중국어 동시통역을 준비했다.

향후에도 국사대화 개최를 계속해 나감과 동시에 3 개국어로 된 보고서 배부와 릴레이 에세이 메일 매거진 등으로 참가자 네트워크화를 도모해 나가겠다.



※메일 매거진 백넘버는 아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okushinewsletter.tumblr.com/>

SGRA는

SGRA(세그라)는 세계 각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오랜 유학생생활을 거쳐 일본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일과 외국인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개인이나 조직이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나 전략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되는 연구 또는 문제해결의 제안을 하고 그 성과를 포럼, 레포트, 홈페이지 등의 방식으로 널리 사회에 발신하고 있습니다.

연구 테마별로 다양한 분야,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가 연구팀을 편성하고 광범위한 지혜와 네트워크를 결집시켜 다면적인 데이터로 분석하고 고찰하여 연구를 수행합니다. SGRA는 어떤 일정한 전문가가 아니라 널리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영역을 포괄한 국제적이고 학제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지구시민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 SGRA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aisf.or.jp/sgra/>)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GRA 소식

SGRA 포럼 등의 공지와 세계각지의 SGRA 회원이 에세이를 매주 목요일에 전자메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SGRA 소식은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http://www.aisf.or.jp/sgra/>) 에서 자동등록 하시면 됩니다.

제5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19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



일시 2021년 1월 9일 (토)
 방법 온라인 (Zoom이용)
 언어 한중일 3개국어 동시통역
 주최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SGRA)

제1세션	[좌장: 무라 카즈아키 (도쿄대)]	
【환영인사】	시작하며	4
	이마니시 준코 (아쓰미국제교류재단)	
【개회인사】	제5회 원탁회의를 개최하며	6
	조 광 (국사편찬위원회)	
【발표1】	개항기 조선의 콜레라 유행과 개항장 검역	8
	박 한민 (동북아역사재단)	
【발표2】	19세기 후반 일본의 감염병 대책과 개항장	18
	이치카와 토모오 (오키나와국제대)	
【발표3】	중국 위생 방역의 근대변천과 성격	26
	위 신종 (남개대)	
【지정토론】	[지정토론 1] 발표자에 대한 코멘트 김 현선 (명지대)	31
	[지정토론 2] 발표자에 대한 코멘트 시오데 히로유키 (교토대)	33
	[지정토론 3] 발표자에 대한 코멘트 친 광 (수도사범대)	34

제2세션	[좌장: 남 기정 (서울대)]	
	자유토론	37
	논점정리 : 류 지에 (와세다대)	
	자유토론 : 패널리스트 (국사대화 프로젝트 참가자)	
	총 괄 : 송 즈웅 (남개대)	
	코 멘 트 : 아카시 야스시 (전 유엔사무차장)	
	폐회인사 : 미타니 히로시 (아토미학원여자대)	
	사전 코멘트 57	
	후기를 대신하여	
	김 경태 68, 김 현선 71, 히라야마 노보루 74	
	저자경력 77	
	참가자 리스트 78	

※동시통역
 한국어⇄일본어 :
 이 헤리 (한국외대)
 안 영희 (한국외대)
 일본어⇄중국어 :
 정 리 (북경대)
 송 강 (북경외대)
 중국어⇄한국어 :
 김 단실 (프리랜서)
 박 현 (교토대)

환영인사

시작하며

이마니시 준코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원문은 일본어. 번역 : 민 동엽(도쿄대)]



SGRA 2021 REPORT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사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상무이사, 그리고 SGRA 대표를 맡고 있는 이마니시 준코라고 합니다. SGRA 는 2016 년에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 4 회 국사들의 대화 ‘동아시아의 탄생’ 을 개최하여 여러 선생님들께서 대단히 활발한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한의 알려지지 않은 병이 화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전세계가 팬데믹에 휩싸일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도쿄는 지금 두 번째 비상사태선언을 한 상태이고 코로나로 인한 저희들의 피로도 상당히 쌓여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사 프로젝트는 이렇게 웨비나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논문은 한중일 각각 1 편 씩입니다만, 지정토론자 3 분과 함께 지금까지 4 차례의 국사대화 프로젝트에 참가해 주신 30 명의 선생님들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웨비나의 패널리스트는 마이크와 카메라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켜주시고,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태까지의 국사대화와 다른 점은 120 명을 넘는 일반 참가자 분들이 계시다는 점입니다. 일반 참가자 분들은 질의응답과 채팅창 기능을 통해

발표자와 패널리스트 분들께 질문 또는 코멘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후일 레포트 등을 통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중일 세 언어에 대응해서 6명의 선생님들께 동시통역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도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본어를 서울에서 한국어로, 북경에서 중국어로 동시통역을 해 주시고, 세계 어디서든 그 언어를 선택하신 분은 들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의 대단한 점은 이렇게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발표자와 토론자, 패널리스트 여러분들도 한국, 중국, 일본의 각지에서 참가해주셨고, 또 일반 참가자 분들 중에는 유럽이나 호주에서 듣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온라인 회의와 웨비나는 예전부터 존재한 기술입니다만, 코로나의 유행으로 인해 급속히 사회에 녹아 들고 있습니다. 국사대화 프로젝트가 웨비나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얻은 것은 감사한 일이며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도 이렇게 버추얼과 리얼을 조합하여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초로 국사 온라인 대화의 가능성을 시도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개회인사

제5회 원탁회의를 개최하며

조 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먼저 ‘19 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 65 회 SGRA-V 포럼, 제 5 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온라인 학술대회(웨비나)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이번 대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만큼, 직접 대면을 통한 상호 이해의 증진을 이루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대는 온라인을 통한 대면에 점차 친숙해 져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하나의 추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비대면 학술회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가야 할 비대면 대화를 먼저 실험해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의 비대면 학술대회의 개최에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19 세기를 공통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루고 있는 19 세기는 어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인터내셔널’ (International) 이란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대두된 ‘인터내셔널’ 이란 개념은 20 세기를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작동해 왔습니다. 한편 이 단어에 대한 대응적 의미에서 ‘내셔널’ (National) 의 의미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은 자신의 국사를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국사들이 이제 다시 모여 대화함으로써 자국만의 이해를 뛰어넘어 상호협조하는 건강한 ‘인터내셔널’ 을 이루어 보려는 새로운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도 바로 상호이해를 강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20 세기 말엽부터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여러 분야에 걸쳐 다시 하나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학문연구나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국내외 통상관행 등 인류사의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대의 출현을 전망하게 해주었습니다. 전통적인 국경이나 경계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1 세기의 세계는 지리적으로 더욱 가까워져 갔고, 그 결과 오늘날 서울과 베이징과 도쿄는 일일 생활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상대지역으로 날아가서 사무를 보고 저녁에는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터내셔널’ 은 긍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19 세기 말엽 이래 전개된 국제화는 제국주의와 같은 폭압적 측면이나 20 세기 말엽의 신자유주의의 광풍과 같은 문제를 인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21 세기 초두인 오늘에 이르러서 ‘인터내셔널’ 의 또다른 측면인 팬데믹 (pandemic) 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어두운 측면이 오늘날의 팬데믹 현상입니다. 팬데믹이란 단어의 그리스어 어원처럼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COVID-19 는 동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국경을

무너뜨리며 국가와 국경의 의미뿐만 아니라 모든 경계(境界)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 보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 세기는 지리적 개념의 변화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나 국경 또는 경계 구분이라는 문화적 개념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 세기 우리는 ‘시간’이라는 물리적 개념에 있어서도 변화를 확인해야 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팬데믹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 세기라는 시간적 의미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촉구합니다. 즉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21 세기는 이미 20 년 전에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COVID-19 를 공동으로 경험하고 있는 오늘에 이르러서야 20 세기와는 본격적으로 결별된 새로운 세기로의 진입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기’라는 물리적 개념보다는 거기에 특별한 문화적 가치를 담아 Post-COVID 라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Post-COVID 의 시대에 접어들어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19 세기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19 세기는 이 세 나라가 모두 근대국가로 전환되어 가던 때였습니다. 근대국가로 전환되어 가면서 영토관념이 확산되고 국경이 강화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동아시아에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세 곳의 주권국가들은 전염병에 대처하면서, 근대의 상징이었던 공공의료의 강화문제를 제기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그때와 지금은 백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19 세기적 팬데믹에 대한 문제의 연구는 21 세기 오늘의 상황, 즉 Post-COVID 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인터넷셔널’의 문제해결에 하나의 전범을 마련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쓰미 국제교류재단은 동아시아에 ‘知的 공유공간’, ‘知的 플랫폼’을 만들어 여기에서 동아시아 시민사회에 지혜를 공급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사들의 대화’입니다. 2016년 9월 기타규슈에서 개최된 1회 대화 이래 일본, 한국, 필리핀 등에서 개최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상관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확인작업은 상호화해와 공동인식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개최되는 SGRA-V 포럼과 다섯 번째 국사들의 대화(웨비나)는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조명하면서 진정한 21세기인 Post-COVID 시대를 여는 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번의 다섯 번째 대화의 세 발표에서는 온라인 매체의 ‘도움’으로 1회부터 참석해주신 여러 발표 토론자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지혜를 얻고 위기를 넘어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대화’의 취지를 살린 학술대회가 발전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주관해 주신 아쓰미 국제교류재단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화에 관여된 모든 이들은 진정한 21세기인 Post-COVID 시대의 주역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1



개항기 조선의 콜레라 유행과 개항장 검역¹

박 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요지

본 발표에서는 조선의 개항 이후 주기적으로 유행하면서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했던 대표적 감염병으로 콜레라에 주목한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 개항장에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검역규칙을 제정하는데 조선을 비롯한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한다. 1879년 조선과 일본 각지에서는 콜레라가 크게 유행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때 콜레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 측은 19개 조항으로 된 ‘호열탈예방병취급방규칙’을 조선정부에 전달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이것은 메이지 10년 내무성의 ‘호열탈병예방심독’과 메이지 12년 태정관의 ‘호열탈병예방가규칙’을 조합한 것으로, 조선 상황에 맞게 조항을 추가하였다. 콜레라 예방과 감염자 처리를 위한 관리규정을 양국이 새롭게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하다. 다만 격리병원설치와 위생에 대한 인식에서 조일 양국 간에는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 1886년에도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유행했다. 개항장인 부산, 원산, 인천을 중심으로 조일 양국은 콜레라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조선의 각 개항장에서는 콜레라 유행에 대처하는 가운데 각국의 관리가 원활하게 공조하기도 했고,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검역 시행을 두고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당시 검역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설정하며, 관련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했다. 검역규칙의 제정과 시행에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자국 거류민의 보호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따라서 시행하려는 취지가 좋고, 시급성이 있더라도 개항장에서 검역규칙 시행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관철하기란 어려웠으며, 타국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했다. 조선정부에서 기초한 검역규칙의 조항을 검토할 때 일본 측은 청국의 각국 조계와 이탈리아의 운영 사례까지 참고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1. 머리말

2020년 초부터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하여 하루 평균 6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으며, 전체 감염자 수는 이미 5천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2020년 11월

1 이 발표문은 필자의 기존 논문 두 편을 요약하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朴漢珉「1879年コレラの拡散と朝日兩國の対応」今西淳子編『アジアの未来へ—私の提案』, Japan Book, 2017; 박한민「1886년 조선 내 콜레라 유행과 개항장 검역」『醫史學』29-1, 大韓醫史學會, 2020.

초 현재). 전대미문의 신종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감염병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는 페스트, 콜레라, 천연두, SARS, MERS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개항 이후 주기적으로 유행하면서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던 대표적 감염병으로 콜레라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기항로의 개설로 인하여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개항장을 중심으로 콜레라가 빈번하게 유행함에 따라 검역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개항 이후 조선에서는 1879년에 콜레라가 크게 유행했다. 이때 조선인은 최소 6만에서 7만 명 이상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콜레라 예방을 위해 부산항의 일본 관리관은 자국 거류민을 대상으로 19개 조항으로 된 「虎列刺豫防竝取扱方規則」을 시행하였다.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實) 代理公使는 이 규칙을 번역하여 조선 측에 전달했다.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규칙은 일본정부가 발표한 「虎列刺病豫防心得」(1877)과 「虎列刺病豫防仮規則」(1879)의 조문을 선별하여 정리한 것이었다.

1886년에도 조선 각지에서 콜레라가 유행하였다. 黃玿에 따르면 당시 전국적으로 ‘怪疾’이 크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한 자가 수백만 명으로 “대략 일개 道の 戶口數가 줄어들 정도”였다(황헌 지음, 2005: 234). 같은 해 일본에서도 콜레라가 크게 유행했는데 전국적으로 108,40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1880년대 들어서 콜레라 발생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해가 바로 1886년이였다(山本俊一, 1982: 69~70; 辛圭煥, 2018: 5~6).

1886년은 조선에서 釜山, 元山, 仁川 세 곳을 개항하여 居留地를 정비해 가는 시점이자, 開港場마다 海關이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업무를 보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개항장을 드나드는 각국의 선박과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창궐하여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고, 병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개항장에서 자국민을 관리하던 관리들을 중심으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만큼 임시로 검역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본 발표에서는 조선의 세 개항장을 중심으로 콜레라 예방을 위한 검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려 한다. 당시 개항장에는 일본인이 2,961명으로 거류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청국인이 349명이였다.²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자국의 거류지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 조선관리와 교섭하면서 임시검역규칙의 시행을 논의한 주체 가운데 하나가 일본 측이었다. 조선 정부에서 검역규칙을 제정하기 이전이었고,

2 일본인의 경우 부산 1,976명, 인천 706명, 원산 279명이였다(李東勳, 2019: 51). 청국인의 경우 부산 87명, 인천 205명, 원산 57명이였다(朴正鉉, 2010: 57). 1880년대 중반 개항장에 거류한 서양인 수는 통계상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으나, 1897년 인천거류지 기준으로 보면 영국인 17명, 미국인과 독일인이 각각 14명, 프랑스인 9명 등 서양인을 다 합쳐서 63명 정도이다. 손정목에 따르면 각국거류지 개설 초기부터 일본인들이 95% 이상을 차지하였다고 한다(孫禎睦, 1982: 163~164).

감염병 유행에 조속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었던 만큼 각 개항장에서 일본영사가 먼저 검역규칙 실시를 제안하고, 조선의 감리와 해관 세무사를 비롯하여 각국 영사들과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 콜레라가 개항장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조선과 일본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항장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어떻게 전개하였는지, 검역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2. 인천항의 임시검역규칙 시행 시도와 사후 승인취소

부산 지역에서 콜레라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인천영사 스즈키 미쓰요시(鈴木充美)는 콜레라의 항구 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 대책을 고안했다. 하나는 거류민 보호를 위한 衛生會 조직이었다. 다른 하나는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선박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임시규칙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가는 일이었다.³ 일단 스즈키는 긴급상황이라는 판단에 기초하여 각국 영사, 仁川海關長 代理 쇠니케(J. F. Schönicke)와 면담했다. 그 후 당해 한정으로 항구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할 수 있는 임시규칙을 작성했다. 쇠니케는 여기에 곧바로 동의했다.⁴ 임시 검역규칙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인천영사에게 보고를 받은 다카히라 고고로(高平小五郎) 代理公使는 海關長이 제의한 선박검역 임시규칙에 동의하기는 하나, 일본 선박에 적용할 경우 “우리 行政權을 割與하는 단서가 되어 상당히 부적절한 상황” 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임시규칙 내용대로 실시하면 검역권 발동과 관련된 자국 관리의 행정권한을 조선정부에 넘겨주는 선례를 만들게 될 수 있음을 의식한 것이다. 아울러 세부적인 규칙 내용으로 避病院 설립 방법, 檢疫官 선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단 상황이 급박했던 만큼 침착한 내용에 기초하여 이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⁵ 다음날 스즈키는 대리공사 지시에 대해 검역규칙 시행은 성격상 행정규칙을 발동하는 것임을 인정했다. 그는 이번에 긴급히 전염병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려는 임시검역규칙이 인천으로 입항하는 商船에만 효력이 있으며, 이것은 仁川海關長 및 각국 영사와 협의하여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임시규칙이 일시적으로 성립한 ‘일종의 약속’ 이라서 일반에게 시행하는 行政規則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선례를 거론하였다. 그러므로 “해관에서 임시검역규칙을 만들어 우리로서도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行政權을 할양하는 단서까지는

3 公信第117號(1886.6.27)鈴木充美→青木周藏「仁川港」『朝鮮國仁川元山京城釜山檢疫規則制定並實施一件(以下資料名은 ‘朝鮮國檢疫規則’으로 略稱)』(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erence Code. B12082328300: 0246).

4 公信第74號附屬甲號京第65號(1886.6.18)鈴木充美→高平小五郎「仁川港」『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35).

5 公信第74號附屬乙號仁第40號(1886.6.22)高平小五郎→鈴木充美「仁川港」『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36).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⁶ 여기에 영국 총영사를 비롯하여 미국 부영사, 청국 영사도 임시규칙 제정 취지에는 동의했다는 사실도 전달했다. 스즈키 본인만이 아니라, 콜레라 유행을 우려한 각국 외교관들도 해관을 통한 임시규칙 작성과 적용에는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상의 권리에 관련될 정도의 중대한 행정규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스즈키는 임시선박검역규칙을 인천항 거류 일본인들에게 고시하고, 7월 15일부터 이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본국에 보고했다.⁷

임시규칙 실시 여부를 두고 인천영사가 외무성으로 문의했기 때문에 일본정부에서는 관련 사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내각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이 문제를 두고 법리상으로 우려되는 점을 보고했다. 이노우에는 조선도 ‘치외법권(治外法權)의 조약’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선 법률을 그대로 재류 일본인들에게 적용하는 일은 “조약의 정신에 반하여 승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양국 인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감염병의 경우 공사나 영사에게 법률 제정권을 위임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나, 조선정부와 협의하여 검역규칙을 제정하고 공사 이름으로 포고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지지 않은 이상 부득이하나 상대방 국가와 협의하여 검역을 실시하고, 위반자가 나오면 일본 국내에서 발포된 법률과 예방규칙에 따라서 처벌하자는 의견이었다. 일본 내각에서는 외무대신이 제안하였던 의견대로 조선주재 일본공사에게 훈령하라고 결정했다.⁸

하지만 각의 결정이 내려온 시점은 인천영사가 임시검역규칙을 인천항 내에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한 날짜보다 나흘이 지난 후였다. 외무대신이 다카히라 대리공사에게 전보로 훈령을 송부한 것은 7월 26일이었다. 이것은 내각의 지시사항이 나온 날로부터도 이미 1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다.⁹ 본국에서 최종 결정되어 내려온 훈령보다도 11일 먼저 조선 현지에서 영사가 임시검역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간 것이었다. 외무성은 현지 영사의 월권행위를 지적하며, “海關長 조회를 승낙한 것은 속히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스즈키는 다카히라에게 電信을 이용하여 ‘취소’ 처분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인천에서는 콜레라가 유행 중이기 때문에 선박검역규칙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고했다.¹⁰ 인천 현지에서 콜레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율을 마치고 시행에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사전준비를 마쳤지만, 실제로는 거류지 내에서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소독 시행, 격리병원 설치 등의 대응조치로 ‘비상하게 바쁜’ 상황이었다. 인천항에서 급한 불부터 꺼야 했기 때문에 정작 검역규칙 시행은 후순위로 밀려나 버린 것이다. 콜레라로 인천 상황이 심각해진 반면, 부산항은 오히려 잦아드는 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검역규칙의 시행 효과가 줄어들었기

6 같은 문서.

7 公信第 126 號(1886.7.17)鈴木充美→青木周藏「仁川港」『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69).

8 親展送第 417 號附屬文書(1886.7.19)「仁川港」『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54).

9 電信訓令案(1886.7.26)井上馨→高平小五郎「仁川港」『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64).

10 機密第 84 號仁川海關檢疫一件第二別紙甲機密第 20 號(1886.8.5)鈴木充美→高平小五郎「仁川港」『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94).

때문에, 해관장도 검역규칙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¹¹ 검역규칙 시행 건을 보고한 후 인천 현지에서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급변하면서 대응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영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카히라는 임시규칙 시행 최소의 진행절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외무대신에게 전했다. 일단 최초에 임시검역규칙을 승인했던 시점으로 되돌려 이것부터 취소하고, 거류민에게 고시한 布達까지 폐지한다. 그 후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外衙門)과 규칙을 다시 논의하여 처분할 방법을 마련해 보자는 제안이었다.¹² 외무성은 이것을 그대로 승인했다. 다카히라는 外務省 훈령대로 인천영사에게 임시검역규칙의 “승낙을 취소하고 아울러 귀관의 布達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¹³ 이로써 스즈키가 인천항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고시했던 임시검역규칙은 효력을 상실했다.

3. 원산항의 검역규칙 시행 합의와 각국의 공조

부산항에서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元山領事館에서는 6월 1일부터 입항하는 선박에 검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거류민들에게는 콜레라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과 임시규칙을 만들어서 이를 준수하라고 고시했다.¹⁴ 원산에서의 콜레라 대응에 대하여 오쿠기세이(奧義制) 書記生에게서 보고를 받은 외무성에서는 시행규칙을 검토했다. 「虎列刺病取扱竝豫防假規則」 가운데 제 20 조부터 제 22 조까지는 字句를 수정했다. 전체 13 개 조항으로 된 「避病所假規則」은 바로 시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¹⁵

이로부터 두 달 후 永興을 비롯하여 元山에서도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오쿠 領事代理는 8월 7일부로 元山監理 李重夏와 청국의 元山署理通商事務 姚文藻에게 공문을 보내어 거류지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남쪽 한 방향으로만 제한하고, 여기로 출입하는 양국인과 이들이 소지한 화물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烽燧臺 아래의 도로와 다른 경로는 차단해서 콜레라가 유입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통지했다.¹⁶ 하지만 조선과 청국 양측 관리들은 通商章程 운영상 이 문제를 규정한 조문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급기관에 시행을 문의해야 한다고 일본 측에 회답하였다. 姚文藻는

11 機密第20號(1886.8.8)鈴木充美→青木周藏「仁川港」『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98).

12 機密第84號(1886.8.6)高平小五郎→井上馨「仁川港」『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292).

13 公信第177號附屬乙號機密第39號(1886.9.5)高平小五郎→鈴木充美「仁川港」『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300: 0306).

14 第70號(1886.6.21)奧義制→青木周藏「明治十九年元山港檢疫規則二關スル件」『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29).

15 送第5060號(1886.7.5)青木周藏→奧義制「明治十九年元山港檢疫規則二關スル件」『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38).

16 第105號附屬第10號(1886.8.7)奧義制→姚文藻(Ref. B12082328800: 0350); 第31號(1886.8.7)奧義制→李重夏「明治十九年元山港檢疫規則二關スル件」『朝鮮國檢疫規則』.

“통상장정과 관계가 있는 사건이어서 중대하나 아직 명확한 조관이 없기 때문에 本署의 理事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다” 는 입장이었다.¹⁷ 李重夏도 부산에서 이미 이 방법을 실시했으나 아직 불편함이 있고, 상업상으로도 지장이 있다고 전해 들은 내용을 거론하면서 “감히 장정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마음대로 허락하여 시행할 수는 없다” 고 하였다.¹⁸ 조약 운영상 규정이 없는 내용을 임의로 실행할 수 없다면서 일본 측의 소독실시에 관한 협조요청을 조청 양국 관리들은 곧바로 수용하지 않았다. 오키는 일본 거류지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일본영사가 발포한 각종 규칙과 경찰법을 따르기로 이미 약정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소독 실시를 거부하는 이유가 ‘자못 기이’ 하다고 보았다.¹⁹ 그래도 姚文藻는 袁世凱에게 문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일본 측 규칙은 일본상인에게만 시행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일본 측이 제안한 소독 규정을 자국민에게까지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李重夏와 姚文藻, 오키 기세이와 원산 세관장 크리그 (E. F. Creagh) 는 日本領事館에 모여 소독법 실시 문제를 재차 협의했다. 하지만 소독실시를 두고 각자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는 쉽지 않았다.²⁰ 8월 12일 오키는 일단 3국 거류민을 대상으로 하여 공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소독방법을 정리한 「虎列拉病豫防略則」에 한문 번역까지 포함하여 姚文藻에게 보내면서 이의가 없다면 속히 고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姚文藻는 현재 콜레라에 대한 대처는 각국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元山監理, 海關稅務司와도 회동하여 검토한 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일단 略則 내용에는 이의가 없다고 했다.²¹ 元山副領事와타나베 오사무 (渡邊修) 는 이 내용을 李重夏에게 통지하면서 문제가 없다면 곧바로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李重夏도 이 略則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회답했다. 단, 朝鮮官吏, 吏隸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²² 李重夏는 「擬防疫章程議定後另約二條」를 작성하여 와타나베에게 보냈다. 조선 관청을 출입하는 관리와 屬吏는 상인들과 다르므로 소독법 실시를 제외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이들이 입는 의복 색상과 표식 등을 확인한 후에는 길가에서 이들을 붙잡아 소독실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와타나베는 같은 날 보낸 회신을 통해 여기에 이의는 없다고 답했다. 조선 측과 왕복한 조회문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 외무성으로 보고한 문서에서 李重夏가 官署를 출입하는 관리와 속리들에 대하여 소독법 실시를 제외시켜 달라고 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 관리들은 일반인들과 같은

17 第105號附屬1號(1886.8.7) 姚文藻→奧義制「明治十九年元山港檢疫規則二關スル件」『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52).

18 第105號附屬第18號(1886.8.8) 李重夏→奧義制「明治十九年元山港檢疫規則二關スル件」『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60).

19 第105號附屬第11號(1886.8.8) 奧義制→姚文藻「明治十九年元山港檢疫規則二關スル件」『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53).

20 第105號(1886.8.21) 渡邊修→青木周藏「明治十九年元山港檢疫規則二關スル件」『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47).

21 第105號附屬八號(1886.8.13) 姚文藻→奧義制「明治十九年元山港檢疫規則二關スル件」『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67).

22 第105號附屬第22號(1886.8.16) 李重夏→渡邊修「明治十九年元山港檢疫規則二關スル件」『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70).

방식으로 소독을 받게 된다면 자신들의 체면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관원으로서의 사회적 위신을 중시하면서 민간과의 구별짓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검역을 관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강력히 반발했던 것이다. 게다가 소독을 실시하는 주체는 일본 측이고 조선 관민이 모두 소독을 당하는 객체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측 요구사항을 일본 측에서 수용하는 선에서 소독법 실시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청국 및 조선 측과 소독법 실시에 관하여 공문 왕복을 통해서 협의를 마친 와타나베는 8월 17일부터 이 법을 시행하겠다고 양측에 통보했다.²³ 李重夏와 元山通商事務書記官 劉希文도 각각 자국민에게 이 사실을 고시하고 여기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회답했다.²⁴

원산에서는 조, 청, 일 삼국의 관리들 간에 콜레라 예방을 위한 협의와 공조가 비교적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 편이었다. 일본거류지로 출입하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리들을 대상으로 예외를 두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 조선 관리가 일반인보다 나은 위생상태와 사회적 위신을 중시하는 면을 소독 논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부산항의 검역규칙 시행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부산에서는 5월부터 콜레라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매일 평균 20명 정도가 발병하여 사망했다. 인근 지역의 상황을 확인한 부산 일본영사관에서는 조일 양국민의 거류지 왕래를 차단하고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는 검역방법을 조선 측에게 조회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이미 검역본부는 龍尾山과 거류지 내 세 군데에 分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다.²⁵ 6월 3일부터 일본 조계지 안으로 출입하는 조선인들에게도 관원과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소독약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이튿날부터 사람들의 왕래를 차단했다.²⁶ 조선 관원들이 통상의 공무를 보러 가는 일마저 소독 절차를 따르도록 조치한 것을 두고 監理署에 근무하던 閔建鎬는 답답해했다. 이에 항의하는 공문을 일본 측으로 보내야 한다고 監理에게 건의할 정도였다.²⁷

이로부터 2주 정도 지난 후, 콜레라 예방방법과 시행범위를 정한 검역규칙을 日本領事館에서 시행하려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부산 주재 일본영사가

23 第37號(1886.8.16) 渡邊修→李重夏(Ref. B12082328800: 0377); 第15號(1886.8.16) 渡邊修→劉希文「明治十九年元山港檢疫規則二關スル件」『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78).

24 第105號 附屬 本號(1886.8.16) 劉希文→渡邊修(Ref. B12082328800: 0381); 第105號 附屬 第24號(1886.8.16) 李重夏→渡邊修「明治十九年元山港檢疫規則二關スル件」『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8800: 0380).

25 「釜山及馬山浦流行病(本月二日釜山特發通信)」『東京日日新聞』(1886.6.11).

26 『海隱日錄』I, 丙戌5月2日, 3日(釜山近代歷史館 編, 2008: 563~564); 「釜山通信」『郵便報知新聞』(1886.7.7). 『海隱日錄』은 釜山監理署에서 근무한 閔建鎬가 남긴 일기이다.

27 『海隱日錄』I, 丙戌5月3日, 4日(釜山近代歷史館 編, 2008: 563~564).

시행하겠다고 통지해 온 검역규칙은 전체 12 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다.²⁸ 12 가지 조항은 일본거류지로 드나드는 인원과 물품에 대하여 소독방법과 제한을 규정하였다. 콜레라의 거류지 내 침투 방지와 관리가 검역규칙 시행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일본영사관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히 제정한 단속규정에 불과했다. 각국 외교관들이 보기에 이것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본 측에서 일방적으로 내어놓은 규칙이었다.

東萊府使를 비롯하여 海關稅務司와 淸國理事官은 釜山領事 代理 미야모토 히구마 (宮本熊) 가 보내온 검역규칙 사본을 받아보았다. 하지만 이들은 여기에 다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검역 시행에 반대했다. 조선 측도 조관별로 검토하여 삭제, 개정할 사항을 정리해서 부산영사에게 보냈다.²⁹ 거류지를 왕래하는 자에 대한 准單 발급의 철폐 (2 조), 소독약 살포시 관리와 상인의 구별과 별도 취급 (6 조), 일본영사의 세무사 권한의 침해 (9, 10 조) 등을 거론했다. 거류지 내의 감염병 유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일본 관리가 조선인들을 상위에서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다분했기 때문이다. 일본 측의 이번 대응은 “일종의 專斷”으로, “개항장에서 단순히 일개 영사의 담당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월권행위란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있는 관원들에게 조희하여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었다. 監理는 海關稅務司, 淸國理事官, 日本 領事와 회동하여 별도로 장정을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일본 측은 급한 대로 자국 거류민으로만 한정하여 검역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 일본영사관에서 시행하려 한 검역규칙을 두고 부산 재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소식은 다카히라 대리공사도 접했다. 다카히라는 본국 정부에서도 검역법을 엄중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거류민 일반의 위생예방과 관계”가 있는 만큼 “애초부터 엄격하고 상세하게 종사해야 한다는 점은 물론”이라고 했다.³⁰ 위생과 관련하여 검역법을 시행하는 일이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외국인들로부터 불필요하게 불만을 사는 일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따라서 이들이 반발하게 된 원인을 조사하고, 검역의 시행 경위를 상세하게 外務省에 보고하도록 미야모토에게 지시했다.³¹

아오키 슈조 (青木周藏) 외무차관 (外務次官) 은 이번에 미야모토가 부산항에서 검역예방규칙을 실시하면서 일본 측에서 제정한 규칙을 조선 및 외국인들에게도 적용하려 했다는 점이 “영사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개항장에서 검역과 관련된 행정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조선관리를 비롯하여 각국 영사들과 협의를 하는 절차를 밟은 다음, 상급자인 공사의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거류민들에게 고시해야 했다. 미야모토는 이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콜레라 예방을 위한 검역규칙을 새로 제정하여 각국 외교관들에게 통지함으로써 절차상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아오키로서도

28 機密第九號別紙壹號「釜山港」『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9100: 0439~0441).

29 『東萊府與日本領事往來照會』. 책자에 작성 연도가 적혀 있지 않으나, 1886년 콜레라 유행 당시 부산 감리와 부산 주재 일본영사가 주고받은 문서를 일부 수록하고 있는 자료로 확인된다. 이 책자는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30 機密第9號(1886.7.16)高平小五郎→宮本熊「釜山港」『朝鮮國檢疫規則』(Ref. B12082329100: 0426).

31 같은 문서(機密第9號, Ref. B12082329100: 0426).

미야모토의 신중하지 못한 대처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던 만큼 그를 질책할 수밖에 없었다. 아오키는 향후 검역규칙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본공사가 먼저 조선정부와 협의한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미야모토에게 분명하게 알렸다. 그러면서 부산항에서 향후 콜레라가 유행하게 될 때 대처에 참고할 만한 사례를 하나 제시해 두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元山監理와 日本領事, 淸國理事官이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한 元山港의 방역사례였다.

5. 맺음말

개항기 조선에서는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여러 차례 유행하였다. 부산, 원산, 인천 세 곳의 개항장을 중심으로 콜레라의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방역활동은 1886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시점은 아직 조선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검역규칙을 정비하여 시행에 들어간 단계가 아니었다. 따라서 조선 내 개항장마다 대응 양상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원산항처럼 각국이 원활하게 협조를 하여 방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일본영사가 기초한 검역규칙안에 대해 월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을 빚는 부산항의 사례도 존재하였다.

1886년 당시 콜레라의 지역 확산을 막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역을 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은 분명 존재하였고, 각국 관리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역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은 누가, 어떻게 설정하고, 관련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했다. 조선의 각 개항장에서 근무 중이던 일본 영사는 상황의 緊急性을 이유로 하여 단속할 수 있는 조항들을 草案으로 제시했다. 여기서 향후 검역규칙의 표준을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다만 개항장별로 朝鮮監理와 海關長, 각국 외교관들로부터 검역규칙 시행을 두고 각각 동의를 얻어야 했다. 더 나아가 조약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본국으로부터 검토와 승인을 받는 과정도 거쳐야 했다.

검역규칙의 제정과 시행에는 각국 외교관들의 이해관계와 자국민 보호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러한 만큼 時宜性이 있고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개항장에서 그대로 검역규칙 시행을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는 없었다. 검역규칙을 제정하여 각국 인민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조약 운영상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개항장에 거류하는 타국민의 관리 감독 권한은 어디까지나 해당국의 領事와 公使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긴급하다고 하여 소독실시와 출입통제 등에서 강력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할 경우, 향후 條約違反을 명분으로 열강이 개입할 우려도 있었다. 일본 정부에서는 당시 서구열강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던 條約改正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란 점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조선 개항장 내 검역시행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원산항과 부산항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시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검역규칙의 제정과 운영에는 조선 측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개정, 삭제를 요구하였다. 감염병 예방을 명분으로 삼아 자국민을 대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다분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1886년 조선의 개항장 내 임시검역규칙의 제정과 운영 양상은 각국이 검역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자료

- 『역주 매천야록』 상 (황현 지음, 임형택 외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5)
 『海隱日錄』 I (閔建鎬 著, 釜山近代歷史館 編, 釜山近代歷史館, 2008)
 『東萊府與日本領事往復照會』 (韓國國立中央圖書館 所藏)
 『朝鮮國仁川元山京城釜山檢疫規則制定并ニ實施一件』 (日本外務省 外交史料館 所藏,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erence Code. B12082327900)
 『旧韓末條約彙纂』 中 (韓國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編,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1965)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최덕수 외 지음, 열린책들, 2010)

2. 논저

- 内海孝『感染症の近代史』, 東京: 山川出版社, 2016
 山本俊一『日本コレラ史』,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82
 辛圭煥「1870~1880년대 일본의 콜레라 유행과 근대적 방역체계의 형성」『史林』 64, 首善史學會, 2018
 申東源『한국근대보건의료사 (韓國近代保健醫療史)』, 한울아카데미, 1997
 朴正鉉「19세기末 (1882-1894년) 朝鮮 華商의 조직과 상업 활동」『中國史研究』 66, 中國史學會, 2010
 朴漢珉「1879年コレラの拡散と朝日兩國の対応」今西淳子編『アジアの未来へー私の提案』, 東京: Japan Book, 2017
 朴漢珉「1886년 조선 내 콜레라 유행과 개항장 검역」『醫史學』 29-1, 大韓醫史學會, 2020
 孫禎睦『韓國開港期都市變化過程研究』, 一志社, 1982
 李東勳『在朝日本人社会の形成: 植民地空間の変容と意識構造』, 東京: 明石書店, 2019

발표 2



19세기 후반 일본의 감염병 대책과 개항장

이치카와 토모오 오키나와국제대학

[원문은 일본어. 번역: 안 영희 (한국외대)]

요지

1859년 일본은 대외무역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거점은 통상조약에서 지정된 나가사키(長崎), 하코다테(函館), 요코하마(横浜), 고베(神戸), 니가타(新潟) 등의 개항장이었다. 이곳들은 상업 및 물류의 거점이며 해외로부터 급성 감염병이 유입, 확산되는 장소이기도 했다. 당시 일본에서 만연했던 감염병 중 해외로부터 유래한 것은 187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아시아 콜레라, 1900년 전후의 선페스트였다.

개항장에서의 감염병 대책은 선박으로부터의 감염을 막기 위한 해항 검역이 섬나라에서의 물가작전(水際作戰)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엄격한 실시가 물류를 정체시킨다는 모순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당시 조약 틀에서 외국 선박의 선박에 일본의 행정규칙인 검역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웠다. 실제로 일본측 의료 기술의 미숙함과 자유 무역의 저해를 걱정한 영국 공사의 반대로 검역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한편 개항장 시가지에서의 방역은 국내 각지로의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한 이동 제한, 격리, 소독 등이 상정되었지만 일본 지방 행정과 외국인 거류지의 이중 행정이 걸림돌이 되었다. 또한 개항 당초 감염병 대책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거류지의 영사관에 근무하는 의사와 군의 뿐이었다. 그들은 거류지 사회의 이해를 대변하여 일본인 사회를 포함한 개항장의 방역 행정에 간섭했다.

이상의 특징을 가진 개항장에서의 방역은, 일본측에서 감염병 대책을 맡을 만한 인재를 양성되고, 또 법적으로는 1899년에 새로운 조약이 시행되면서 달라졌다고 생각된다.

1. 머리말

개항장이란 1858년 이후 일본이 각국과 체결한 수호통상조약에 따라 지정된 항만도시를 말한다. 처음에는 요코하마(横浜), 고베(神戸), 나가사키(長崎), 하코다테(函館), 니가타(新潟)의 다섯 곳이었고, 나중에 오사카(大阪)가 추가되었다. 개항장은 부두와 보세창고(保稅倉庫)와 같은 항만시설과 조약체결국의 주민들에게 차지(借地), 거주, 통상을 인정하는 외국인거류지와 그

주변의 일본인 거주지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지역들은 일본의 유통 거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감염병이 해외에서 유입되고, 일본의 각 지역으로 확산되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개항장에 관해서는 대외무역의 무대로 일본경제사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¹. 한편 많은 거류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로서의 외국인 거류지에 대해서는 동아시아에서의 유럽인과 미국인들의 생활사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². 또한 일본에서는 거류지의 제도사(制度史) 연구가 많이 진전되었고, 외국인이 일본측에서 임차하는 토지관련 규정(地所規則)이 주목을 받아왔다³. 최근에는 일본의 행정규칙을 거류외국인에게 적용할 때 발생했던 외교상의 쟁점에 대해 정치외교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⁴. 앞으로는 일본측 기록과 각지에 설치된 각국의 영사관 기록에서 개항장의 거류지제도와 그 운용실태를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요코하마, 나가사키, 고베 세 곳의 개항장을 소재로 삼아 감염병 대책의 역사를 개관해보고자 한다. 그러면서 지역마다의 차이, 감염병 종류에 따른 차이, 시기에 따른 방역의 변화라는 사항에 착안하면서,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일본인사회와 외국인사회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⁵.

2. 요코하마 : 천연두대책을 계기로 한 거류지 자치 요구

메이지시대 초기의 요코하마에서 의료활동의 중심이 된 곳은 구미(歐美)계 거류민이 설치한 요코하마일반병원(Yokohama General Hospital)이었다. 이 병원의 운영형태를 보면 거류외국인 사회에서의 자선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성질이었다. 실제로 병원을 이용한 사람들은 인도나 중국남부 등을 거쳐 요코하마까지 온 선원이나 상업용으로 온 단기체류자(Non-Residents)가

1 대표적인 연구로 이시이 간지(石井寛治) 『근대일본과 영국자본 : 자딘=매디슨(Jardine Matheson) 상회를 중심으로』 도쿄대학출판회, 1984년.

2 J.E.Hoare, *Japan's Treaty Ports and Foreign Settlements: the Uninvited Guests, 1858-1899*, (Kent : Japan Library, 1994)

3 오야마 아즈사(大山梓) 『구(舊)조약 하에서의 개시개항 연구 : 일본에서의 외국인 거류지』(鳳書房, 1967년), 사이토 다키오(斎藤多喜夫) 「요코하마 거류지의 성립」(『요코하마와 상하이 : 근대도시 형성사 비교연구』 요코하마개항자료관, 1995년), 동 「메이지 초년의 요코하마거류지 : 「가나가와항 규칙(金川港規則)」에서」(『요코하마거류지와 이문화교류 : 19세기 후반의 국제도시를 읽는다』山川出版社, 1996년), 동 「개항항칙(開港港則)의 성립과정」(『요코하마항 자료관 기요(横浜開港資料館紀要)』 제23호, 2005년3월).

4 모리타 도모코(森田朋子) 『개국과 치외법권 : 영사재판제도의 운용과 마리아·루스사건』(吉川弘文館, 2005년), 五百旗頭薫(이오키베 가오루) 『조약개정사 : 법권회복으로의 전망과 내셔널리즘』(有斐閣, 2010년).

5 본고는 2021년 1월 9일에 개최된 제65회 SGRA-V포럼 제5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19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에서의 발표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존 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市川智生 「근대일본의 개항장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외국인 거류지 : 1879년 「가나가와항 지방위생회」에 의한 콜레라대책」(『史學雜誌』 제117편 제6호, 2008년), 동 「메이지 초기의 전염병 유행과 거류지행정-1870, 71년 요코하마 천연두 대책」(『日本歴史』 제762호, 2011년), 동 「개항장 고베에서의 감염병 대책과 거류지 자치」(『歴史科学』 제219호, 2015년), 동 「고베 : 1899년 개항장의 방역과 외국인 사회」(永島剛·市川智生·飯島涉 編 『위생과 근대 : 페스트 유행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통치, 의료, 사회』(法政大学出版局, 2017년)).

대부분이었다. 요코하마일반병원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이 시기의 요코하마에서의 위생상황을 정리한 엘드리지(S.Eldridge, 1843~1901)에 따르면 매독과 천연두 등의 감염병이 거류지외국인의 건강을 해치는 최대 문제였다고 한다⁶.

1870년말부터 이듬해인 71년초에 걸쳐 요코하마에서 유행한 천연두는 거류지에서도 감염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태를 일으켰다. 당초에 거류지에서는 요코하마일반병원에 병설된 각국 포창(痘瘡) 병원(Smallpox Hospital)에서 종두와 격리 등의 대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거류지사회에서는 천연두가 만연한 원인을 주변에 있는 일본인 사회에서 적절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⁷. 주일영국공사 파크스(Sir H. Parkes, 1828~1885)는 복수의 개항장에서 성감염병(性感染症) 대책에 종사하고 있던 영국해군 군의(軍醫) 뉴튼(G.B.Newton, 1830~1871)에게 일본에서의 천연두 대책의 계획입안을 명하였고, 메이지정부에게 그것을 실행하라고 직접적으로 다그쳤다. 이 시기 요코하마에서 천연두대책은 거류지는 물론이고, 본래라면 일본측이 대응해야 할 거류지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영국을 중심으로 한 거류지 측의 주도로 실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대책을 논의했던 장소가 영국영사관에서 개최된 천연두 예방회의였다는 점은 이를 상징하고 있다⁸.

그리고 이 시기의 천연두대책을 둘러싼 경험을 통하여, 거류지사회에서는 ‘위생위원회’(Board of Health)를 설립하고 독자적인 방역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다. 일본측에게만 맡겨서는 여러 가지 감염병 위기로부터 거류민을 지켜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더구나 거류지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일본인사회의 감염병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의도하는 것이기도 했다⁹. 이처럼 이 시기의 천연두대책은 외국인거류지의 의료·위생문제에 대해 자치적인 조직의 설치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생위원회’ 구상은 1877(메이지 10)년의 콜레라유행 때 실현되었으므로 탁상공론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일본인 거주지역에서 외국인 거류지로의 감염병 침입을 막을 목적으로 거류지 주민이 자치적인 조직을 만든다는 발상이 계승되어 있었다¹⁰. 그러나 1879(메이지 12)년에 콜레라가 만연했을 때는 가나가와현령(神奈川県令) 노무라 야스시(野村靖, 1842~1909)가 소집하여 방역회의(가나가와현 지방위생회, Yokohama Local Board of Health)를 조직했다. 구성원으로는 일본인 의사와 함께 영국영사관의 의무관과 독일해군병원의 의무관도 포함되어 있어 거류지의 ‘위생위원회’를 일본측에서 흡수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시기에도 일본인 스스로가 개항장의 보건의료를 모두 맡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성급한 생각이다. 콜레라대책회의로 출범한 가나가와현 지방위생회는 시가지의

6 Stuart Eldridge, “Notes on the Diseases affecting European Residents in Japan, upon the basis of all available statistics”, *Medical Reports for the half-year ended 31th March 1878*, No.15. (Shanghai: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Imperial Maritime Customs)

7 “Small-pox and its Prevention”, *Japan Weekly Mail*, Jan. 28. 1871., Vol.II. No.4., p.46.

8 FO262/218, No.2, R. Robertson to H. Parkes, Jan. 12 1871.

9 “The Board of Health”, *JWM*, March 25. 1871., Vol.II. No.12., p.144.

10 FO262/314, R.Robertson to H.S.Parkes, No.69, Sept. 20, 1877. 이 문제에 대해서는 市川智生「開港場横浜における感染症の歴史: 1877年のアジア・コレラ流行の事例から(개항장 요코하마에서의 감염병 역사: 1877년 아시아 콜레라 유행 사례를 중심으로)」(『郷土神奈川』 제59호, 2021년 3월)을 참조 바람.

위생조사와 화장실구조의 개량 등 수준 높은 활동을 했다. 그러한 논의를 주도한 것은 모두 요코하마로 부임하기 전에 동아시아 각지에서 감염병 대책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서양 의사들이었다. 따라서 1870년대말의 요코하마에서 방역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거류지측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코하마에서 일본측 방역회의에 유럽계 의사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게 되는 시점은 1880년 중반 이후의 일이다.

3. 나가사키 : 자체 방역과 세균학의 필드화

나가사키는 중국연안부를 비롯한 동아시아 각지에서 콜레라가 가장 먼저 유입되는 장소였다. 이는 일본의 공중위생에서 나가사키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50년대말 나가사키에는 막부가 의학교 겸 병원인 양생소를 설립하여 네덜란드상관의 의무관으로서 데지마(出島)에 체류하고 있던 폼페(J. L. C. Pompe van Meerdervoort, 1829~1908)를 교사로 삼고, 막부가 파견한 학생과 현지의 사제 등을 대상으로 의학교육을 실시하였다. 메이지시대 이후에도 폼페의 후임인 네덜란드인 의사를 통해 나가사키 병원에서의 진료와 나가사키 의학교에서의 의학교육으로 계승되었다¹¹. 그 때문에 나가사키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개항장에서 일본인 의사를 양성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령 吉田健康(1846~1897)은 메이지 시기 나가사키에서 의료행정의 중심이 된 인물이다. 그는 네덜란드인 의사인 보드윈(A.F.Bauduin, 1820~1885)과 만스벨트(C.G.Mansveldt, 1832~1912)로부터 교육을 받아, 나가사키병원장과 현위생과장(縣衛生課長)을 겸임했고, 1887(메이지 20)년에 제5고등중학교 의학부(第五高等中學校醫學部)가 나가사키에 설치되었을 때는 초대 의학부장에 취임했다. 같은 시기의 요코하마에서 선교의사 출신인 미국인 의사와 영국영사관의 의무관이 교대로 현립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가사키에서 의료의 자립성은 두드러진다.

나가사키 거류지는 설치초기만 해도 영국인 주민을 중심으로 한 차지인(借地人) 등이 거류지위원회(Municipal Council)를 조직하여 경비, 소방, 도로청소, 가로등 관리 등을 대상으로 자치행정을 실시했다. 1876(메이지 9)년, 거류지위원회는 재정난으로 해산하고, 행정권을 나가사키현 측에 반환했다¹². 그러나 이듬해인 1877(메이지 10)년 여름에 중국의 샤먼시(廈門市)에서 콜레라가 전파되자, 세이난 전쟁(西南戦争)으로 정부군 장병의 군사거점이 된 나가사키에서 엄청나게 만연했다. 일본측 기록에는 나가사키 거류지에서의 콜레라대책에 대한 정보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나가사키의 영국영사 트라우프(J. Troup, 1840~1925)가 도쿄의 공사관에

11 나가사키(長崎)대학 의학부 편『나가사키의학 100년사(長崎医学百年史)』(나가사키대학 의학부, 1961년)

12 오야마 아즈사(大山梓)『구 조약 하에서의 개시개항 연구 : 일본에서의 외국인거류지』(鳳書房, 1967년)

보낸 통신에는 구미계 영사를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열고, 각국 영사관의 의무관과 정박중인 선의(船醫)에게 의료위원회(Medical Commission)를 조직하도록 하여 거류지내의 위생조사와 대책을 명령했다는 기록이 있다¹³. 이는 나가사키현청에 설치된 ‘검역사무소’ 구성이 일본인 인사들만 있었던 것에 대한 비판적인 대응이었다. 즉, 제도면에서는 거류지의 자치행정이 종료되어, 일본측이 개항장 나가사키의 일원적 관리를 실시하던 시기에도 콜레라대책처럼 긴급할 때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구미계 거류민이 자치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가사키의학교와 나가사키병원에서 의학교육과 일본인 환자의 진찰을 맡고 있던 네덜란드인 의사는 일본인의 콜레라 감염 상황이나 현의 대응 등의 정보를 영국을 비롯한 영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전하고 있었으며, 거류지사회의 이해관계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나가사키에서는 1885(페이지 18)년 및 1886(페이지 19)년에도 콜레라 유행이 발생했으나, 일본에서의 세균학과 병리학 등 의학연구의 진전으로 방역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 시기 나가사키현에서는 도쿄에서 의학사(醫學士) 야마네 마사츠구(山根正次, 1858~1925)를 초빙하여 나가사키병원에서 콜레라치료법 연구에 종사하도록 하였고, 기타자토 시바사부로(北里柴三郎, 1853~1931)에게는 콜레라에 관한 세균학적 검사를 의뢰하는 등, 나가사키를 콜레라연구의 필드로 제공했다¹⁴. 여기에는 1883년의 R. 코흐(Heinrich Hermann Robert Koch)의 콜레라균 발견으로 상징되는 세균학연구의 성과를 일본에서도 수용하고 있었음을 거류지 측에 보여주고, 나가사키의 방역대책을 일원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국영사 엔슬리(J.J.Enslie, ?~1896)의 반응은 방역업무가 일본인 스태프들만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나가사키현 측에 의존하고 있었다¹⁵. 이처럼 나가사키에서는 의학연구의 진전과 방역 현장을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개항장의 감염병 대책을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4. 고베(神戸) : 콜레라대책을 계기로 한 자치의 확대와 변용

개항장 고베는 규슈와 요코하마·도쿄를 잇는 중계점이며, 유통상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고베거류지에서는 영사단과 차지인(借地人) 대표가 거류지회의를 조직하고, 거류지 행사국(行事局)의 자치행정이 1899(페이지 32)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대상은 경비, 도로, 하수도 수선, 가로등 관리 등 거류지의 토지관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행사국의 재정기록을 살펴보면, 활동

13 FO262/310, No.51., M. Flowers to H. Parkes, Sept. 14. 1877. 또한 FO262/341, No.25., J. Troup to H. Parkes, Aug. 9. 1879. 에도 같은 기록이 있다.

14 기타자토 시바사부로(北里柴三郎)「나가사키항 콜레라병 조사 이야기(長崎港虎列刺病調査ノ談)」(『대일본사립위생회잡지(大日本私立衛生會雜誌)』 제 31 호, 1885년), 야마네 마사츠구(山根正次)『콜레라병범론(虎列刺病汎論)』(英蘭堂, 1887년)

15 FO262/443, No.82, J. J. Enslie to H. Parkes, Sept. 1. 1885.

대상을 한정적으로 함으로써 자치는 장기간 존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행사국이 거류지의 행정영역을 모두 다 맡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거류민의 출생, 사망, 혼인과 같은 주민관리에 속하는 사항은 각국 영사가 자국민만을 관리하였다. 거기에는 속인주의적인 발상이 관철되고 있었다.

고베거류지에서는 병원경영도 자치행정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거류지주민의 기부로 고베국제병원 (International Hospital of Hiogo) 이 설치, 운영되고 있었으며, 진료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자는 미국인 선교의사 베리 (J. C. Beery, 1847~1936) 였다.

거류지에서의 감염병 대책에 관해서는 일본 측에도 거류지 측에도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따라서 양자는 교섭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1886 (메이지 19) 년의 콜레라는 오사카에서 고베로 직접 전파되어, 유행규모는 매우 컸다. 거류지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했기 때문에 거류지행사국은 활동범위를 확대해, 호별 (戶別) 검사, 격리, 소독 등의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이 때 8 개국 영사가 연명으로 거류지주민에게 방역활동에 대한 통고를 하고 있었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¹⁶. 거류지의 주민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래라면 각국의 영사가 관할하는 사항이었다. 감염병대책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고베에서는 거류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조건하에 속지주의적인 대응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자치 확대에 따른 거류지에서의 감염병 대책은 1890 (메이지 23) 년의 콜레라대책 때는 일본측 (효고현, 兵庫縣) 의 거류지내의 콜레라대책에 대한 개입이라는 형태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¹⁷. 그 배경에는 거류지행사국의 재정규모로는 당시 방역수단으로 실시하는 격리나 소독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나아가 일본측이 거류지의 감염병대책을 담당할 때의 논거로 거류지를 포함한 개항장으로서의 고베 방역을 거론했다. 이는 일본인 사회 혹은 거류지 단독으로만 방역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1899 년의 거류지 철폐에 앞서 고베 거류지의 감염병 대책은 일본측에서 일원화하였다.

5. 고베 (神戸) 와 요코하마 (横浜) : 거류지 철폐 후와 페스트 유행

1899 (메이지 32) 년 7 월에 개정조약이 시행되어, 외국인 거류지가 철폐된 직후 고베와 요코하마에서 페스트가 발생했다. 두 지역 모두 외국인 주민들 사이에서는 페스트 감염사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된 대책은 건강진단을 통한 의심환자의 수색에 그쳤다. 고베에서 거류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주거에 소독을 실행한 자는 효고현에 임시로 고용된 영국인 의사 밀러 (R. S. Miller, 생몰년 미상) 였다. 고베 국제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구 (舊) 거류지에서 의료활동을 하는 구미계 의사들의

16 FO262/561, No.26., J. Troup to F. Plunkett, June. 2. 1886.

17 FO262/632, No.31., J. Longford to H. Fraser, Aug. 16. 1890.

손을 통해 일본측에서 구거류지 외국인사회에 대한 페스트대책은 간접적인 형태로 실시되었다¹⁸. 이와 같은 사태는 1880년대 중반의 고베와 요코하마의 콜레라대책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거류지 철폐라는 제도적 변화는 개항장의 방역 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페스트대책에서는 세균학자가 매개동물과 병원균의 배제를 주안점으로 삼은 대책을 실시하였다¹⁹. 그러나 요코하마와 고베 구거류지의 구미계 사회에서는 주거환경의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주장하였다²⁰. 가령 고베에서 고베국제병원의 의사 밀러는 당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던 세균학의 계승자가 아니라 생활환경의 향상을 통해 질병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고전적인 위생학적 견지에 기초한 논설을 집필하고 있었으며, 주민들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었다. 구거류지의 구미계 사회에서는 예전의 거류지 정비문제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거주공간 개선이야말로 종전의 위생학적 견지에서 타당한 감염병 대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리라. 일본측에서 실시한 세균학적 검사에 따른 페스트대책과, 거주환경의 정비를 통한 재래식 위생개선은 극히 대조적이었다. 다만 최신의 세균학 성과를 곧바로 응용했던 것처럼 보이는 일본측의 대책도 실제로는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서의 시행착오였다. 고베와 요코하마에서 실시된 감염지구의 소각처분이나 콜레라 대책이었을 하수도, 변소 배수의 정비는 그러한 한 가지의 사례이다.

6. 맺음말

메이지시기 일본의 개항장에서 거류지제도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대처에 있었다. 급성감염병의 만연은 그 전형이었다. 천연두와 콜레라로 대표되는 감염병의 확대는 당연한 일이지만 행정영역에 좌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을 일본측 혹은 거류지측 어느 쪽이 실시하느냐가 쟁점이 되기 쉬웠다. 배경에는 방역법령, 즉 일본측의 행정규칙을 거류외국인에게 직접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정이 있었다.

요코하마, 나가사키, 고베에서의 거류지운영은 각각 달랐다. 구미계 거류민에 의해 시작된 자치행정은 요코하마에서는 1867년, 나가사키에서는 1876년에 폐지되는 한편, 고베에서는 1899년의 거류지 철폐 때까지 일관적으로 거류지위원회와 거류지 행사국이 활동을 유지했다. 그러나 감염병 대책의 담당자에 착안해보면 세 항구의 실태는 유사하다. 18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자치가 실시되고 있던 고베는 물론이고 이미 행정권이 일본측에 반환되었을 요코하마와 나가사키에서도 감염병 대책은 거류지에서 스스로 실시했다.

개항장의 방역은 지소규칙(地所規則)에 입각한 거류지 자치의 유무와 같은

18 "Sanitary Board for Kobe", *The Kobe Chronicle*, 1899 Nov. 29, Vol.V, No.126., pp.414-415.

19 효고현 경찰부 편(兵庫県警察部編)『효고현 페스트유행지』(효고현 경찰부, 1912년), 가나가와현 경찰부 편(神奈川県警察部編)『가나가와현 「페스트」 유행사』(가나가와현 경찰부, 1910년)

20 R. S. Miller, "The Foreign Community and Plague", *The Kobe Chronicle*, 1899 Nov. 15, Vol.V, No.124., p.386.

제도적인 틀과는 다른 논리로 전개되어 갔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천연두 대책 당시에 필요로 했던 격리나 종두기술, 콜레라 대책에서의 위생공학 분야에서의 지식, 기술 등 의료수준의 문제였다. 개항 후 각 항구에서는 이들 분야는 구미계 거류 외국인의 독무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요코하마와 나가사키의 감염병 대책에서는 비공식적인 자치라 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후 일본측은 1880년대말부터 90년대에 걸쳐, 세균학 수용을 어필하고, 방역관을 개항장에 배치하는 작업 등을 하면서 거류지의 감염병 대책에 개입했다. 1880년대 중반의 나가사키를 세균학자가 콜레라 연구의 필드로 활용한 것은 전형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1899(페이지 32)년의 개정조약 시행에 따른 거류지 철폐보다도 먼저 요코하마, 나가사키, 고베의 방역은 일본측에서 일원화하였다.

발표 3



중국 위생 방역의 근대 변천과 성격

위 신종 남개대

[원문은 중국어. 번역: 김 단실]

요지

본 발표에서는 오늘날 일상생활 중의 위생 표상과 중국의 위생 방역 역사를 통해 중국 근대 위생 시스템 및 그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통적인 위생 방역 관념과 행위에 대한 정리를 통해 근대 이후 중국의 위생 방역의 ‘피하는’ (避疫) 것에서 ‘예방하는’ (防疫) 것으로의 전환, 개인에서 공공(公共)으로의 역사적 변천을 관찰한다. 서방에서 시작된 현대 ‘위생’ 시스템은 못사람들의 흠모를 자아내고 문명의 진보를 대표하는 ‘현대’ 라는 화려한 겉모습으로 치장되어 인간 사회의 곳곳에 배어있는 권력처럼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명의 진보를 나타내는 ‘현대’ 의 의미를 떠나, 그리고 질서정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더욱 낮아진 전염병 감염률을 제외하고, ‘위생’ 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은 정치와 문화상의 패권과 권력이었다. 어느 정도의 불공평, 불의, 신체 자유에 대한 감시와 구속을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과 성찰을 통해, 현재의 중국 위생사 연구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대화 서사(現代化叙事) 패턴을 타파함과 동시에 중국의 현재, 미래의 위생 건설 병폐를 바로잡는 데 교훈이 될만한 역사 자원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발전과 강성(強盛)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오늘날 중국 사회가 민중의 권리보장을 경시한다면, 장원한 시각에서도 중화민족의 미래와 발전에 있어서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자 한다.

설령 근대 이전의 중국 사회에도 위생 행위와 개념이 있었고 오랜 역사의 흐름속에서 수많은 위생방역 조치와 경험들이 축적되어왔다고 할지라도, 근대적 의미의 위생관념과 공권력이 개입된 근대적 위생방역 기제는 서구에서 건너온 박래품(舶來品)임이 틀림없다. 19 세기 후반 이후 ‘망국 멸종’의 위기에 몰리면서 중국 사회의 엘리트들은 ‘비위생적인 나라’, ‘동아병부(東亞病夫)’ 등 치욕적인 국제이미지로부터 탈피하여 ‘나라를 튼실히 하고 민족의 씨를 지켜내야 한다(強國保種)’는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차츰 신체와 위생에 주목하게 되었고, ‘근대적’ 위생 관념의 제창과 공중보건제도 구축이라는

굴곡지고도 험난한 역사 여정을 선두에서 밀고 나갔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근대화 실현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개도국 중국에서 서구 유래의 근대 공중보건제도의 전면구축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전통에서 근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국 사회는 위생 방역면에서 뚜렷한 변화를 겪었다.

첫째, 근대이후 서구문명 등 여러 요인의 영향 하에 중국 사회는 정부가 주축이 되어 국가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 근대 공중보건체제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갔다. 19세기 후반부터 서구문명의 파장이 커지면서 서구에서 탄생한 근대적 공중위생 관념과 기제는 과학과 문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따금 폭발했던 콜레라, 페스트, 천연두와 같은 치명적 급성 감염병의 직접적 영향으로 중국사회에 수용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과거에 민중 건강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전문 부처조차 없고 기능이 불충분했던 국면으로부터 탈피하여 중앙과 지방에 의료 위생 사무를 관장하는 위생행정 부처와 전문적인 방역연구 기구를 설치했다. 아울러 일본 등 국가를 본보기로 공공위생 관련 법규를 제정했고 소독청결, 검역격리, 인공면역, 질병통계, 역학조사 및 감염병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위생 방역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일반 민중들의 위생 습관 및 의식 향상, 위생환경 개선을 기본내용으로 대중적인 위생 운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원래 개인 영역의 위생문제가 어느 시점부터 민족의 흥망과 관련된 국가 대사(大事)로 탈바꿈했고, 국가가 근대적 공중보건 기제 구축에 힘입어 본래는 민간의 분산적 비제도적 영역에 속했던 위생방역 관념과 행위들을 정부의 제도화된 시스템에 귀속시키는 데 성공했고 민중들의 신체는 날로 국가에 예속되고 국가기능의 구현 및 권력은 끊임없이 확장되어 갔다. 위생 방역의 직접적 목표는 분명히 개인 혹은 민중의 건강 수호에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은 공중보건 사업을 ‘강국보종(強國保種)’ 및 국가 부강을 위한 조치로 간주했고 개인의 권리, 공평, 정의 따위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위생방역 조치 실행에 있어서 여타 사회적 정치적 요인을 감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흔히 공공 위생 사건들이 벌어진 경위를 들여다보면 허다한 경우 통치자가 사회적 사조거나 여론의 힘에 등 떠밀려 자신의 통치를 일층 수호하고 자신의 통치적 합법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았다.

둘째, 전통에서 근대로 나아가면서 사회의 위생방역 관념은 부정적 이미지에서 차츰 긍정적 방향으로 이미지 전환이 이루어졌다. 전통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중국 사회의 인식은 ‘귀신이 벌이는 짓(鬼神司疫)’ 이거나 ‘사악한 기에 의해 초래되는 짓(疫气致疫)’ 이라는 두 가지로 귀납된다. 비록 광범위한 내용들이 이에 포함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양내피외(養內避外)’가 근본이며 원기(元氣)를 튼튼히 다지는 것 외에 역병을 멀리하는 것을 위주로 한, 대체로 소극적이고 내적인 개인 행위들이었고 결코 관(官府)이 개입된 공공행정사무는 아니었다. 아울러 감염병은 허공에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예방하거나 피할 방도가 없다는 인식에서 역병에 감염되면 제 명이 다한 것이라고 운명으로 받아들였고, 감염병 예방 쪽에 고민의 역점을 두는 일은 없었다. 근대에 접어들어 공공위생 관념과 제도가 서서히 도입되면서 중국 사회의 감염병 대응의 방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회피와 치료를 위주로 한 방역에서 적극적 방역으로

전환되었다. 근대의 방역은 이념상 예방을 더욱 강조하며, 대응조치에 있어서는 위생환경을 적극 개선하는 방법으로 감염병 폭발 예방과 횡수 감소를 지향하는 한편, 소독과 검역, 강제적인 인공검역과 과학연구 등 수단을 통해 감염증을 통제하고 정복하고자 했다.

현대의 위생방역 체제는 청조말기부터 20 세기에 걸쳐 복잡한 역사적 맥락속에서 중국 사회에 서서히 도입되어 중국의 현대 제도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가. 우리는 근대 위생방역의 뚜렷한 근대성과 외래성에만 주목해 전통적 요소와 역량을 흘시해서는 안 된다. 중국 사회에서 공권력이 개입된 현대 과학기술 기반의 근대적 공중보건 기제는 서양의 박래품임에 틀림없고 서구 문명의 강점과 막강한 영향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진보라든지 근대화 따위의 개념에서 출발하지 말고 역사 사료에 입각하여 고찰하면 전통적으로 공중위생과 연관된 관념이나 행위가 청조말엽 이전의 중국 사회에서도 엄연히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역량이 이를 주도했으므로 그 표출방식이 개별적이고 자주적이며 공권력의 개입이 결여된 특징을 보일 따름이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지적이 가능하다. 1) 근대 위생 기제 속에 전통 요소와 리소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방역 이념에서 여기(戾氣) 학설과 세균 이론이 접목되고 일부 섭생 관념이 근대 보건 개념에 통섭되면서 근대 위생 속의 전통 요소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도시 환경위생행정의 분뇨 오물처리 시스템의 근대적 전환은 전통 리소스에 힘입어 이루어졌다. 2) 당시 중국 사회 운영상의 자체적 욕구가 종종 국민들로 하여금 근대 위생체제의 여러 항목들에 상이한 반응을 보이게 했다. 예컨대 중국의 일부 중심 도시에서는 청조 가경-도광(嘉道) 시기 이후 수질오염과 감염병 유행이 빈발하면서 수자원을 개선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가 존재했기 때문에 수돗물과 같은 시설은 인구가 많은 중심 도시에서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졌다. 또한 나날이 심각해지는 도시의 환경오염에 비판과 불만을 제기해 왔던 지역사회 엘리트층들도 특히 도시 위생행정이 신경쓰였던지라 선선히 이를 수용했다. 이러한 부분은 말할 나위없이 근대 공중보건 시스템 발전의 초석이 되고 변화의 근거를 제공했던 것이다.

나. 근대 공중보건체제는 단순한 건강 수호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계급성과 종속성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즉 근대적 ‘위생’은 당연히 건강 수호라는 효용성을 지니고 있지만 제도로써 도입 및 추진 시 전적으로 건강 추구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지 아니 할뿐더러 사회속에 존재하는 민족, 재산,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우위에 있는 계층이 자신들의 이익에 입각하여 과학과 문명의 이름으로 관련 조치들을 사회전체에 강요하는 이익 및 권력 질서이기도 한 것이다.

다. 근대 공중보건제도의 도입 및 전개는 도시면모 개선, 위생시설 정비, 감염병 발병을 저하 그리고 국가 이미지 향상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의 중상류 계층의 시각에서는 당연히 매우 바람직한 진보적 조치였다. 그러나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층 서민들에게는 흔히 ‘힘만 들고 혜택은 없었다’. 예컨대 분뇨 오물 처리와 같은 청소 시스템의 변혁은 일반 서민들에게 세금 증세를 예고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주변 향민들의 거름을 얻기 위한 비용을 증가시켰다. 이른바 도시 면모 개선은 그들에게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고 적어도

시급한 일은 아니었다. 아울러 위생 청결, 검역과 같은 제도는 사람들의 실리와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기도 한다. 보다시피 위생적 각도에서 이룩된 근대화 과정의 허다한 ‘진보’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지불한 경우가 일상다반사였다. 예컨대 위생검역은 중국 사회에 주권, 건강, 문명과 진보를 선물했다고 하지만, 민중의 권리와 자유가 위생과 문명이라는 이름 하에 침해되고 박탈당한 측면도 있었다.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흥 등 정당한 이유와 목표를 위해 일부 국민들의 이익과 자유의 희생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민중의 권리와 합리적 요구를 묵살하고 심지어 보수, 우매, 낙후라고 호도해도 될까? 이들에게 강요하는 희생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좀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라. 청조 전기에 국가는 의료위생 사무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고 제도적인 관련 규정도 결여된 상태였다. 청조 말기에 위생행정이 구축됨에 따라 위생사업은 점차적으로 종전의 개별적이고 자주적이며 관리를 받지 않는 행위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官)의 직능 하에 놓인 업무로 자리매김되었다. 의료 위생 사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점차 증대되었고, ‘국가 근대화’의 중요한 부분인 정부의 위생행정의 점진적 구축은 국가 기능의 심화 및 구체적 구현이었다. 이는 국가 권력의 일종 확장이기도 했다. 설령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자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 제도 자체에 내재된 권력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상응한 감독과 제약 기제를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의 기능은 근대화라는 명목 하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무한정 확장되어가는 한편, 민중의 실제 요구는 묵인된다. 그 결과 전국민이 비용을 지불한 이른바 진보와 ‘근대화’라는 성과가 적어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조말기 이래 서양의 근대적 경험을 모델 삼아 과학, 문명, 진보의 명의 하에 근대적 공중보건제도를 도입, 구축한 시도는 내우외환이 수시로 덮치는 어려운 역사적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주권위기 등 외부의 압력이 없지 않았지만 총체적으로 이는 100여 년 전 중국의 지역 엘리트층의 자발적, 자각적인 선택이었고 근대 이래 국가와 국민의 근대화를 추구해 온 그들의 노력의 일부분이기도 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데는 상당히 복잡한 원인과 마인드가 작용했겠지만, 당시 안팎으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이 제도가 중국 사회를 구원하고 종족의 가난과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실제 필요성과 적용여부 같은 것을 거의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 사실상 치밀하게 고민할 기회와 시간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 실행시의 편의를 위해 그들은 복잡한 상황을 주권 수호, 문명과 현대화 추구 라는 단순한 이슈로 물고 갈 수밖에 없었다. 시대가 바뀌고 심적 여유나 물질적 풍요가 이제는 지나친 사치가 아닌 오늘날에 와서 과거 선인들의 노력과 한계를 타할 필요는 없겠지만, 역사의 복합적인 모습을 되살려 내어 현재를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시의 복잡한 역사 구도 속에서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되짚어보고 그 속에서 근대성을 다시 성찰할 수 있는 영감과 자원을 발견할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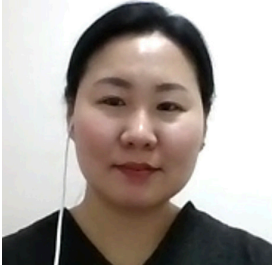
근대 이후 서구의 민주정치제도의 발전은 ‘생명정치’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새로운 통치권력은 초기의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살게 하는’ 권리에서 점차적으로 ‘사람을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권리’로 바뀌었다. 이 새로운 ‘생명정치’는 민중의 생명과 건강 등에 책임을 지니므로 근대 공중보건체제의 생성 발전에 박차를 가했고 정권은 생명에 관여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부여받았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나라의 문이 열리고 민족적 위기가 날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외압에 자극받아 근대화의 길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빈발한 전염병이 계기가 되어 정부 주도하에 강성국가를 지향하는 근대 위생방역 체제를 점진적으로 도입 창설하였고 이는 중국 근대화 과정에서 뚜렷한 특색이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감염병을 근대 공중보건과 직결시켜 논술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역병은 하나의 계기에 불과했다. 근본적 동력은 역시 중국문명 자체에 내재된 엄청난 자생력과 자강정신이었고 대대로 이어온 사회적 재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중시에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중국의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이 갖는 의미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국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면 감염병 대응과 치료에 관한 전통적 유산을 치밀하게 점검하여 근대 보건제도에 유기적으로 접목시킬 만한 충분한 여유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도 구축에 있어서 오로지 ‘강국(強國) 보종(保種)’ 즉 국가 강성(強盛)의 실현이라는 의미만을 부각시키고, 위생방역 자체가 지닌 개개인의 생명과 건강의 권리 수호라는 의미에 제대로 주목하고 체현하지 못했던 까닭에 청조말기 및 민국시기의 위생방역은 지나치게 짙은 정치적 색채를 띄게 되었던 것이다.

주요 참고 문헌

- 반켈러: 《19세기 중국의 페스트》 주후이잉 옮김, 중국런민대학출판사 2015년.
 덩테타오: 《중국방역사》, 남녕: 광서과기출판사, 2006년.
 이지마와타루: 《페스트와 근대 중국: 위생의 제도화와 사회변천》, 푸이엔, 위신중, 장빈 옮김,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9년.
 판싱준: 《예방의학사상사》, 상하이: 화동의무생활사華東醫務生活社, 1953년.
 위신중: 《청대 위생 방역 메커니즘과 그 변천》 2016년 베이징사범대학출판사.
 미셸 푸코: 《사회를 지켜야 한다》 치옌한 옮김, 상하이: 상하이인민출판사, 2018년.
 미셸 푸코: 《생명정치의 탄생》, 모웨이민, 자오웨이 옮김, 상하이: 상하이인민출판사, 2018년.
 위신중: 《청조시기 강남의 운역과 사회: 하나의 의료사회사 연구》, 북경: 북경사범대학 출판사, 2014년.
 위신중: 《진실과 재구성: 20세기 중국의 역병과 공중위생을 조감하다》 <안휘대학학보> 2015년 5기.
 위신중: 《청대 위생방역 기제과 그 발전》, 베이징: 베이징사범대학출판사, 2016년.

지정토론 1



발표자에 대한 코멘트

김 현선 명지대

2019년 12월 31일 호북성 무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19(COVID-19)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남미까지 확산되면서 전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1년이 지난 현재(2020년 12월 31일)까지 전세계 확진자는 8200만을 돌파했으며, 사망자는 180만을 넘어섰다. 오늘날 코로나 19의 범유행과 방역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관련하여 세 분 선생님의 연구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염병과 방역, 환경과 위생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토론자로서 세 분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먼저 박한민 선생님과 이치카와 선생님의 연구에서 개항장 검역에 있어 조일 양국이 모두 주도권 문제로 마찰을 경험하였던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두 분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방역을 주도한 국가가 근대 문명을 주도한다는 것과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코로나 위기와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이른바 ‘강대국들’이 높은 발병률과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강대국들’의 대처는 상상 이상으로 무능했고 속수무책이었다. 위신종 선생님의 ‘중국 위생 방역의 근대적 변천과 성격’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근대적 위생 방역의 의미에 대해 개인적으로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더하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미래 중국의 위생 건설의 병폐를 바로잡는 데 큰 교훈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여담으로 위신종 선생님과 인연을 말씀드리자면, 화중사범대학(華中師範大學)에 재학할 때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에서 특강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된 마음에 잠을 설쳐가며 선생님의 특강을 들으러 간 적이 있었다. 소심한 성격 탓에 차마 선생님께 사진과 사인을 요청하지 못했는데, 오늘 선생님을 뵈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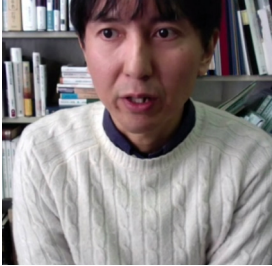
1) 28p에서 “근대 위생방역의 뚜렷한 근대성과 외래성에만 착목해 전통적 요소와 역량을 홀시해서는 안 된다. 공중위생과 연관된 관념이나 행위가 청조 말엽 이전의 중국 사회에서도 엄연히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역량이 이를 주도했으므로 그 표출방식이 개별적이고 자주적이며 공권력의 개입이 결여된 특징을 보일 따름이다”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회역량이 의약국사업 등을 벌일 때 국가 및 관부와 폭넓은 협력이 이루어졌음을 언급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관부와 협력의 과정에서 공권력이 개입하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2) 30p 에서 “(근대 공중보건)의 근본적 동력은 역시 중국문명 자체에 내재된 엄청난 자생력과 자강정신이었고 대대로 이어온 사회적 재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중시에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중국의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이 갖는 의미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 언급하였다. 전통시대 동아시아에서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정자는 이를 실정에 대한 하늘의 견책으로 간주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재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중시에 있었다” 를 이해하였다. 하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중국문명 자체에 내재된 엄청난 자생력과 자강정신” 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그것을 과장하여 해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3) 29p 에서 “위생적 각도에서 이룩된 근대화 과정의 허다한 ‘진보’ 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지불한 경우가 일상다반사였다” 고 언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의 희생과 사회적 불만을 언급한 문집이나 기록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취약계층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과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과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 반면 서구에서는 개인의 ‘자유’ 를 절대적 가치로 삼은 탓에 ‘공공의 이익’ 을 지향하는 사회적 합의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코로나 확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기도 한다. 청대 역병이 발생했을 때 사회역량이 국가의 이익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중국 민간에서는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는 없었는지 궁금하다.

전염병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류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전염병과 관련하여 하나의 지구로 설정하여 연구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오늘 선생님들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앞으로 닥칠 전염병 유행을 극복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지정토론 2



발표자에 대한 코멘트

시오데 히로유키 교토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 민 동엽(도쿄대)]

박한민 선생님 논문에 대한 코멘트

감염병 대책에 있어서 개항지의 외국 영사가 주도권을 잡았고 또 행정권이나 주권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는 지적은 이치카와 선생님 논문에서 제시된 일본의 경험과도 공통되는 부분이어서 흥미로웠다.

청국 이사관(理事官)이 조선의 해관세무사와 공동으로 감염병 대책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또한 이치카와 선생님 논문에서는 근대 의학이 중요한 논점이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선에서는 어땠는가.

이치카와 선생님 논문에 대한 코멘트

역시 감염병 대책의 주도권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 의료의 수준, 즉 근대 과학이라는 요인이 명확해진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개항지에는 중국인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들은 감염병 대책에 있어서 어떠한 처우를 받았는가.

일본이 근대 의학을 수용함과 동시에 국내의 감염병 대책에서도 주도권을 잡았던 경험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위 신종 선생님 논문에 대한 코멘트

위생과 방역이라는 주제에 대한 외래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라는 논점을 제시하신 점은 흥미로웠다.

위생이나 방역은 박래품(舶來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애당초 콜레라나 페스트와 같은 역병이야말로 박래품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19 세기의 콜레라나 페스트가 서양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콜레라는 인도에서, 페스트는 운남성에서 퍼졌다. 그러나 팬데믹의 요인은 서양 국가들에 의해 동아시아가 세계 시장으로 통합되었고 교통의 혁명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사람들의 이동이 발생한 것에 있다.

역병을 쫓아서 위생이나 방역이 그 뒤에 들어온 것은 아닐까?

그리고 박한민 선생님 논문과 이치카와 선생님 논문에서 논해진 위생·방역과 행정권·주권의 관계는 중국에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의식되기 시작했는가.

지정토론 3



발표자에 대한 코멘트

친 광 수도사범대

[원문은 중국어, 번역 : 홍 용일(도쿄대)]

우선 이번 회의의 주최 측 요청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기승을 부리는 이 특수한 시기에 저는 운이 좋게도 여러 선배님을 통해 역사 속의 방역 관념과 실천에 대한 논의를 귀담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로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저의 연구 분야가 근대 의료사, 방역사가 아닌 관계로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세편의 논문에 근거해 간략한 의견을 제출하고, 아울러 목전의 전염병 발생과 방역 사업의 추이에 대해 현실적인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편의 논문 모두 주제가 명확합니다. 근대 중국, 일본, 조선이 전통 사회에서 현대로 전환하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염병에 대응하고 방역 관념을 보급해 갔는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한민 교수와 이치카와 토모오 교수는 각각 근대 조선과 일본 거류지에서의 전염병 확산과 방역 조치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개항구별 전염병 발생 특징과 각 정권이 행한 서로 다른 방역 대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신종 교수는 근대 중국의 신흥 국가 정권 그리고 개혁의 풍파 속에 있던 사신계층이 어떻게 문명하고 위생적인 현대 방역 관념을 확립하고 보급해 갔는지,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구현된 권력 관계에 대해 규명하고 있습니다.

1. 구분과 연결

대략적인 시대 구분이긴 합니다만, 근대는 구분과 연결이 공존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근대 국가는 민족의 경계를 확립하고 전 지구적인 식민 확장을 지속해서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낳은 중요한 결과는 많은 새롭게 범주화된 단위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가령 세 편이 논문을 언급된 현대 국가, 거류지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정치, 행정, 경제, 공간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전염병의 발생은 이러한 인공적인 범주를 의도치 않게 파괴하기도 했죠. 바이러스와 세균은 구체적인 물체와 인체에 부착되어 전 세계를 떠도는 상인, 병사, 사절, 선박, 화물과 함께 확산됩니다. 전염병의 폭발은 바로 이러한 현대적이고 인위적인 범주의 무효성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근대적인 범주는 전염병의 확산을 촉진하기도 했죠. 이러한 범주가 효력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잠시나마 합작과 연계를 시도하게 됩니다. 공동의 방역 지식과 체제를 공유하는 것을 통해 최종적으로 역병을 통제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전염병 확산의 새로운 형세와 더불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범주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폭발도 우리에게 구분과 연계의 복잡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존재하고 무단히 진화, 확산할 때, 우리는 모종의 방대한 체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초국가적인 단위가 존재하고, 중간 지점에 국민국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가령 중국의 경우 성, 시, 구, 주민 주거단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정교한 방역에 있어 효과적인 구분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가끔은 거리 하나를 사이 두고 서로 다른 행정 구획이 이루어져, 한쪽은 고도의 위험구로 지정되기도 하지요. 이러한 구분은 주민들의 생활 범위와 생활 양식(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자가 격리되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출근도 가능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전염병의 확산은 전례 없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항, 기차역, 버스 역과 같은 교통 중추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기존의 역할과는 대극적으로 방역 체계의 약점을 노출하는 장소로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융통성이 있고 효율적인 체계를 운용하여 전염병의 돌발성 및 비상태(非常態)적인 속성에 대응할지 역사와 작금의 현실이 지속해서 사고해야 할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 평등과 위계

목전의 전염병 서사 가운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용모가 흐릿하고 날로 증가하는 숫자로만 표현되는 '감염자', 그리고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감염자'들의 대조적인 관계입니다. 감염이란 측면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데, 감염 서사에는 이러한 계층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지요. 바이러스 자체가 무차별적이라면 바이러스를 어떻게 인지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회 속의 위계성과 권력 관계가 반영됩니다. 이번 회의의 세 편의 논문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식민체계 하의 내국인과 지배자들이 방역을 둘러싸고 형성한 권력관계, 새로운 네이션(國家民族) 틀 속에서 서로 다른 계층(사신계층과 관료)들이 어떠한 방역 관념으로 자신의 주도권을 확립하여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람들이 질병을 통해 무엇을 담론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논의한 수전 손탁의 "질병의 은유"라는 책을 연상케 합니다. 이번 전염병의 폭발을 계기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더욱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가령 국가권력, 국제관계, 생명권, 가족구조 등 이슈들은 역사의 관점에서 다시 분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전염병과 방역을 이해할 수 있지요.

3. 공동체 / 커뮤니티와 비정식 관계

세 분 학자의 논문은 주로 국가와 사회라는 차원을 둘러싸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점진적인 차원에서 역사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다시 말해 개인, 가정에서 출발하여 사회와 국가를 인식하는

방향성이지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 중간 지점에 하나의 환절을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상부와 하부 구조를 잇는 공동체 / 커뮤니티입니다. 근대 북경의 전통 주거 양식인 사합원(四合院), 상해의 리농(里弄)과 같은 이웃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근대 도시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확대가족(extended family), 근대 교육과 직업을 통해 구축된 친밀 네트워크 등, 이러한 공동체 / 커뮤니티는 모두 유연한 존재로서, 심지어 모종의 모호한 중간지대로서 새로운 관계, 체제와 구조를 지속해서 생산해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학교, 회사와 같은 조직과 기구는 개인과 관련된 유효한 단위로 될 수 없고 심지어 방역의 중심적인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단지는 기층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가 공동체 / 커뮤니티에 주목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이지요. 방역 물자가 부족할 때, 친척, 친구와 같은 비정식 관계가 사람들이 물자를 획득하는 중요한 루트로 작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 혹은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물자 조달을 받을 수 없었지만, 친척 혹은 친구를 통해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물자의 유통과 공유를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도 새로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는 사회와 국가의 체제적인 차원, 특히 기층 차원의 운용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한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대략적인 관찰과 생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2 세션 자유토론

좌 장 : 남 기정 (서울대)
 논점정리 : 류 지에 (와세다대)
 자유토론 : 패널리스트 (국사대화 프로젝트 참가자)
 총 괄 : 송 즈웅 (남개대)

[발언은 모국어]



남기정 제 2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의 남기정입니다. 마닐라 회의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무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고 반갑습니다. 마닐라 회의 직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 19가 1년째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1년 동안 동아시아 방역공동체는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고, 방역공동체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동의 대처, 공동의 대응 노력은 지지부진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후퇴하고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코로나의 지구화 이면에서 인류의 지구화가 멈춰섰고, 국가가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또 각 나라에서는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엇그제 1월 7일 현재 일본은 4,467명, 한국이 798명, 중국이 74명. 옥스퍼드 대학이 만들어내고 있는 Our World in Data에 나오는 코로나 19 확진자 수치입니다. 오늘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 19가 국경을 넘는 존재라고 하고, 국경을 무력화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19를 파악하고 그 존재를 가시화시키는 것은 국가별 데이터입니다. 국경을 넘는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은 여전히 국경에 의존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현실 속에서 이 자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동아시아의 이 지역에서 삶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역의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감염병이 다시 일깨워주는 역사의 교훈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류지에 선생님이 1 세션의 발제와 토론, 그리고 아홉 분께서 사전에 전해주시신 코멘트를 종합해서 논점을 정리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에 입각해서 자유토론을 한 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을 마치고서는 송즈웅 선생님의 총괄, 아카시 선생님의 코멘트, 미타니 선생님의 폐회 인사를 각각 5 분씩 듣겠습니다.

자유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유토론 마지막에 아까 1 세션의 발제자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3 분씩 정리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유토론 시간은 50 분에 불과합니다. 자유토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제자는 모국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한 코멘트인지, 누구에 대한 질문인지 처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발언을 3 분에서 5 분 이내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역을 의식해서 가능한 천천히 논점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패널리스트 모두가 한 번씩은 발언할 수 있도록 발언 시간을 의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은 Q&A 창, 또는 Q&A 창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채팅창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수 기능이 있는 분은 거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류지에 선생님께서 논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논점정리

류 지에

남기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세 분의 발표자 선생님과 코멘테이터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간적인 한계로, 세 분의 발표자 선생님과 코멘테이터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특히 인상이 깊었던 부분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의 장을 열어가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자 선생님과 코멘테이터 선생님의 발언은 매우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분의 관점은 서로 교집합을 이루듯이 일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세 가지 언급이 유독 인상 깊었습니다. 첫째는 발표자와 코멘테이터 선생님들이 모두 각각의 시각에서 주권, 행정권, 근대화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치카와 선생님의 19 세기 일본의 방역 과정에 관한 논문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듯이, 일본은 서방의 의학지식을 받아들이고, 의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 주권, 행정권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동아시아 지역 모든 국가가 근대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조약 개정을 통해 독립적인 국가를 실현해가는 과정과도 매우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방의 근대문명을 수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시점에서 볼 때, 국가의 주권과 행정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근대사 서사에서 이러한 주권과 행정권의 위상은 심지어

서방 문명 접수에 관한 언급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5.4 운동에서 제기한 ‘과학과 민주’ 라는 구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과학과 민주’ 라는 두 가지 개념은 단순히 서방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모종의 의미에서 국가의 독립, 주권과 행정권의 독립에 관한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의의를 생각해 볼 때, 주권과 행정권에 관한 관점은 동아시아 지역 근대사를 관찰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참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권, 행정권, 근대화의 관계는 다른 측면에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부터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감염 예방과 치료의 동기 및 수법이 많이 달라졌는데, 아까 위신종 선생님 강연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셨지요.

또 하나는 식민지 지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염병 예방과 식민지 통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즉,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보여진 방역 문제, 식민지배를 받는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 통치자로서의 일본은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지? 이런 시도들이 해당 지역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어떤 작용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연구를 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컨대, 이 주권, 행정권의 독립과 근대화는 세 선생님 모두 다루고 있는, 비교적 큰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염병과 사람들의 초국경적인 이동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가지 특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대규모 전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모든 국가가 국경을 폐쇄하고 인간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후속책으로 정보, 지식, 치료법 등을 공유하며 국경을 초월한 공동 대응으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 공유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죠. 정보는 주권과 정치 문제로 얽히기 쉽습니다. 정보 공유와 주권 정치는 경우에 따라 모순적인 문제로 비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정보 공유는 전염병 예방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참고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적(개인) 네트워크와 공적(사회) 네트워크 사이의 관계, 국가권력과 개인의 관계도 이목을 끄는 부분이죠. 우리는 일부 국가가 질병의 예방 과정에 국가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아주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구조활동이 전개되는 양상도 발견되었죠. 국가 네트워크와 개인 네트워크 사이의 연결고리 결핍으로 지역 커뮤니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근대사를 통틀어 봤을 때, 지역간 협동, 국가간 관계, 개인과 사회 네트워크 등 영역에서 어떠한 관계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즉 국가와 사회 사이의 이러한 대립과 협동 관계는 방역 정책 과정에 매우 돌출된 문제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해석 가능할까요? 그리고 1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러한 관계성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관계로 오늘 저는 이상의 세 가지 점에서 여러분의 발표와 코멘트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유토론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류지에 선생님께서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감염증을 둘러싼 주권, 행정권과 근대화의 문제, 감염증과 인간 또는 사물의 이동의 문제, 감염증의 예방, 치료를 위한 사적 네트워크와 공적 네트워크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발언 신청자가 없으시다면 오늘 채팅창을 통해서 코멘트를 해주신 오카와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카와 선생님의 오늘의 코멘트는 류지에 선생님이 제기해 주신 문제 가운데 첫 번째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카와 선생님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오카와 마코토 주오대학 오카와 마코토입니다. 방금 패널리스트 분들께 채팅을 통해 코멘트 원고를 보냈습니다만, 다른 출석자분들께서는 보실 수 없어서, 여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자, 코멘테이터분들께 제출해 드리고자 하는 건, 감염병 유행과 정치비판의 관계입니다.

‘역(疫)’의 의미는 죽은 자의 징벌로서 일어나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정쟁으로 황성한 왕족이나 귀족의 영혼이 징벌로서 감염병을 일으킨다고 예전부터 믿어져 왔고, 감염병 대책으로 징벌을 내리는 영혼에 대한 위무가 요구돼 왔습니다. 그 예로서 일본에서는 토다이지(東大寺)를 중심으로 한 진호(鎮護) 불교나 헤이안의 어령신앙(御靈信仰) 등이 전개돼 왔습니다. 또한 정쟁으로 숨진 사자를 기리는 것은 현재 정권에 일정 정도 비판이나 견제를 촉발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의학이 발달한 근세이후에도 동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19 세기 동아시아에서도, 예컨대 위신종 선생님의 보고에서는 감염과 천명(天命)을 연결 짓는 민중의 심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걸 넓게 말하자면 천견설(天譴說)의 아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문제에서도 독일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경제지상주의가 원인이 된 글로벌화와 협애한 자국중심주의가 감염을 확대시켜, 새로운 인간관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나 리버럴리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사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이 19 세기 동아시아의 감염병 유행이 각각의 국민에게 어떤 정치의식 변화를 일으켰는가(혹은 일으키지 않았는가)에 대해 여쭙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 기정 네, 아홉 분의 패널리스트는 이미 코멘트(57 쪽 참조)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류지에 선생님께서 종합해서 논점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코멘트를 주신 분들께서 혹시 미진하다고 생각되거나 강조되어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발언을 신청해 주십시오. 그럼 우선 오쿠보 선생님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쿠보 다케하루 게이오대학 오쿠보 다케하루입니다. 지금 오카와 선생님의 질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여쭙보고자 합니다. 역병 확대가 민중에 끼친 영향과 민중의 반응에 대해서입니다.

이번 발표의 공통 주제에는 ‘사회적 반응’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세 분의 선생님 발표에선 이 점이 명시적으로는 논의되지 않은 듯합니다.

제가 여쭙보고자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역병,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민중 사이에 다양한 소문과 가짜 뉴스를 낳고, 민중을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아세워, 사회에 분단과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이는 현대뿐만 아니라 19 세기에도 보인 일입니다.

예를 들면, 메이지기 일본에서 콜레라 환자는 피병원(避病院)에 격리됐습니다. 그러자 민중 사이에 소문이 퍼져 “저 환자들은 서양식 병원에서 서양인 의사에 의해 산 채로 간을 빼앗겨 그 장기가 해외에 팔려간다”고 하는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가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콜레라에 대한 공포는 메이지 정부의 공중위생행정에 대한 반발로 번져, 콜레라 잇기(一揆)로 발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감염병의 민중에 대한 영향, 특히 거기서 일어난 민중의 극단적인 행동과 사회의 분단에 대해 세 분의 선생님은 19세기 일본, 한국, 중국의 문맥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 기정 지금 바로 세 분의 발제자에게 답변의 기회를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질문과 코멘트, 발제자분들께서는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마지막에 압축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무카이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무카이 마사키 도시샤대학 무카이 마사키입니다. 유럽과 동아시아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9세기 후반은 일본, 중국, 한국 모두 그때까지의 정치체제가 붕괴하고 민족주의가 고양된 시기이고, 현재의 국가로 이어지는 국민의식도 형성돼 가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생님 발표에서는 특별히 다루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의 거류지에선 유럽, 특히 영국 주도는 없었던 것인지 여쭙보고자 합니다. 유럽의 의학력이 이후 한국에서 기독교가 지지를 얻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쭙습니다.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히라야마 선생님.

히라야마 노보루 가나가와대학 히라야마 노보루입니다. 류지에 선생님과 오쿠보 선생님 코멘트에서 ‘정보’가 포인트로 거론됐습니다만, 이에 관해 동아시아의 거류지 미디어에 의한 정보 전달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여쭙보고자 합니다.

지정토론자 중 한 분인 시오데 선생님은, 19세기 중엽이후 동아시아의 서로 다른 나라 내의 거류지(예를 들면 상하이와 요코하마 같은) 미디어(당시는 신문입니다만)가 서로 참조하거나, 혹은 논의를 했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상하이의 신문에 대해 일본 요코하마 신문이 반응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콜레라처럼 국경에 관계없이 퍼져가는 감염병 대책에 있어서, 바다를 건넌 다른 나라 거류지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만, 이 점에 대해 세 분의 선생님이 아시는 게 있다면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는 더이상 질문이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일본 분들께서 많이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선생님들 발언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코멘트를 사전에 보내주신 허태구 선생님, 그리고 한성민 선생님,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로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한 성민 안녕하세요, 한성민입니다. 세 분 선생님들의 발표, 매우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세 분 선생님들 발표의 공통점을 보면, 전염병 자체에 대한 대응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정치의 개입에 주목해서 발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전염병은 국적이 없는데 사람은 역시 국적이 있구나 라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원초적인 질문입니다만,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 주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인 방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지, 그 주도권을 누가 행사하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어떤 것을 더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가령 방역 주권을 해당 국가가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근대 동아시아의 경험을 보면 결국 의료 수준의 차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서양의 의사 혹은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개항장에서 일본인 의사가 실질적인 방역을 주도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방역 주도권, 주권의 문제는 단지 국가의 자존심 문제인가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논문 발표를 들으면서 개항장을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해당국가를 중심으로 하거나, 상당히 고립적으로 전염병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에게는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19 세기의 전염병은 특정 지역의 풍토병이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대규모 인구이동의 결과 전 지구적으로 유행한 것인데,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국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1851년부터 국제위생회의가 여러 차례 개최되면서 공동의 대응 노력이 보입니다만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공동의 노력이 없었는지, 최소한 감염병 발생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는 구축되어야 할 텐데 그런 모습이 없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히라야마 선생님과 제 질문이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허태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허 태구 네, 지명받은 허태구라고 합니다. 제가 제출한 코멘트는 전공자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세 분 선생님 논문을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이 역사 이래로 인간이 설정한 인위적 구분이라고 할까요, 국적, 인종,

성별, 계급 차이와 같은 것을 차별하지 않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인간을 평등한 하나의 숙주라고 생각하고 침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원탁회의가 한중일 간의 역사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켜 보자는 의도에서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회의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한다는 평범한 바람입니다.

오늘 발표는 지금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무력화시키는 민족주의의 고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코멘트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이것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시야나 긍정적인 국면을 열어준 그런 측면은 없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2년 전 서울에서 개최했던 원탁회의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보고 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서 전부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대화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줌 웨비나 기능을 통해서 많은 국적의 선생님들이 하나의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코멘트를 듣고 지금 나온 논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게이오대학 판루이충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판 루이충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매우 뜻깊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중국어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세 분 선생님의 발표 및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듣고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의료 위생 연구를 전문으로 하지 않지만, 방금 전 교토대학 시오데 선생님의 식민지 방역 문제에 관한 발표를 듣고, 2년 전까지 저와 함께 일을 했던 현 도쿄대학 이시하라 아에카 선생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대만 위생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다카기 도모에에 관한 책 (『高木友枝——台湾衛生学の父』学校法人北里研究所, 2018年) 을 썼습니다.

다카기는 방금 이치카와 선생님이 언급한 기타자토 시바사부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 분의 선생님께서 조선, 일본과 중국, 대만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작년에 케이오 대학 잡지 『미타평론』 (2020년 11월호) 에 다카기에 관한 문장을 다시 한번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재단 홈페이지에 관련 링크를 공유 하 겠 습 니 다 .(<https://www.mita-hyoron.keio.ac.jp/features/2020/11-3.html>)

저는 위생사 분야의 연구자가 아니지만, 다카기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유독 인상이 깊었던 점은, 일본이 1895년 ‘마관조약’ (馬關條約, 시모노세키 조약) 을 통해 대만을 점령했을 당시, 대만 민중들이 비록 일본의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지만 일본군 희생자는 대만의 저항 운동이 아니라,

대부분 전염병, 즉 페스트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만은 1919 년에 이르러서야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철저히 페스트를 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말라리아는 더욱 심각했는데, 1945 년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다가 1965 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히 퇴치를 할 수 있었죠.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저의 논문을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엄격한 학술 논문은 아니지만, 잡지는 기타사토 연구소에서 발행한 것으로 책 속에 상세한 주석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세 분께 묻고 싶은 문제는, 19 세기 전염병이 창궐할 때 각 나라의 지도층, 황실은 어떤 보호를 받았는지요? 오늘 발표자 선생님은 모두 일반 민중 사회를 다루고 계신데, 제가 아시아 역사 자료센터에서 일본의 황실 궁내청이 어떤 보호책을 실행했는지에 관한 사료를 읽은 적이 있어서 특히 중국과 한국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저의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 일단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추가로 코멘트를 주시기도 하고 몇 가지 새로운 질문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감염병을 다루고 있는 것은 19 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근대화해 처한 시기입니다. 근대화라는 것은 근대민족국가를 만들어가는 운동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존재하고 있는, 국경으로 구획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아러니컬하게도 방역 주권과 같이 이 문제를 국가적인 수준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발제나 코멘트에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던져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서 조금 더 발언을 해주시고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 반증이 있다거나, 아까 한성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의 대처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제시해 주시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미래를 그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미디어 문제를 가지고 소통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국경을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들에 대한 발제자들의 반응을 듣고 싶은데요. 먼저 박한민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박 한민

패널리스트 선생님들께서 19 세기 콜레라 감염병 유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로 모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가 다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몇 가지만 먼저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다른 선생님들의 발언을 듣고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쿠보 선생님과 무카이 선생님의 질문은 역병 유행과 관련해서 민중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를 지지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았나, 즉 민중들의 대응에 관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통적으로 조선에서 콜레라나 천연두, 장티푸스와 같은 역병이 유행했을 때의 반응을 보면, 기본적으로 격리병원(避病院)을 통해서 격리를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약을 나누어

준다든가 제사(厲祭)를 지내는 방식으로 많이 대처를 합니다. 이러한 양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개항장이 들어서고 나서 서양인 의사, 일본인 의사가 들어와서 근대의료와 관련된 것들을 실제적으로 개항장 인근에 있는 조선 백성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면서입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약을 타러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론 일본 측의 간 장기 매매 이야기와 같은 격렬한 저항도 있었습니다. 서양인들이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서 눈이나 장기를 매매해서 팔고 약으로 쓴다는 소문은 1888년 조선에서도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근대 의술에 대한 반감 같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는 것인데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그렇고 아마 청나라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용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반감을 가지고 대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근대 의료 기술이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낫다고 체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을 하는 부분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인 의사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알렌(Horace N. Allen, 安連)이라든가 에비슨(Oliver R. Avison, 魚丕信),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국왕이었던 고종과 같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서 서양 의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이거는 이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한성민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건데, 동아시아 내 정보 네트워크 구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논의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만, 한중일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감염병에 대해서 대처하는 유럽과 같은 방식의 국제회의가 열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항장 내에서 거류지회의, 혹은 조계지회의라고 하는데요. 조선 측에서는 신동공사(紳董公社)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미국 등 각국 외교관과 조선 측의 관리들이 모여서 거류지 운영과 관련된 논의들을 합니다.

물론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회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럽같은 방식의 국제검역회의가 열렸다가 보다는 해관(海關)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 청국에서의 운영 사례, 일본에서의 운영 사례, 그런 것들을 수합해서 조선 해관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들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해관 같은 경우는 좀더 연구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 발표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치카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치카와 토모오 오키나와국제대학 이치카와 토모오입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오데 선생님의 질문에 거류지 중국인에 관한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걸 상당히 커다란 주제로 제 논문에 쓴 적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약 절반은 나가사키에서도, 요코하마에서도, 고베에서도 중국계 주민이었습니다. 주로 광동, 복건, 그리고 상하이 등에서 온 주민이 많았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선 로컬적인 면에서 외교교섭에 관계됐던 점, 즉 영사 레벨의 관계에 관해선, 한마디로 청국이사관(영사) 부임이 상당히 늦어졌던 계

영향을 줬습니다. 일청수호조약이 맺어진 건 1871 년이지만 부임한 건 70 년대 말이었습니다.

70 년대 말이 되면, 일본 지방행정과 구미계 영사의 외교상 관계는 어느 정도 이뤄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청국영사가 들어올 틈은 상당히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정세 속에서 콜레라 대책 상황 등을 보면, 예를 들어 요코하마 방역회의 결과를 청국영사에게 전하자, 영사 측이 수령을 거부하는 것이 사례로 나타납니다.

그럼 주민들은 어땠을까에 대해 살펴보면, 실은 일본인 주민도, 거류지 구미계 주민도, 콜레라의 원인은 틀림없이 중국이라는 걸 상당히 명확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콜레라는 중국대륙에서 온 것’ 으로 생각하게 돼 비판이 거류지 중국계 주민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흥미로운 건, 일본 거류지에선 중국인 콜레라 감염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걸 하나의 수수께끼로 여러 사람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본 영국 영사의 조사기록에선 ‘물을 끓여 마시는 관습과 손을 씻는 관습이 상당히 큰 건 아닐까’ 라는 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릴 수 있다면 이 정도일까요? 그 밖의 식민지 문제는 다른 선생님이 대답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히라야마 선생님이 질문해주신 미디어, 정보네트워크 문제입니다. 시오데 선생님 논문은, 저도 훌륭한 논문이라 생각해 막 읽은 참입니다. 거류지 영자신문 등을 보면, 예를 들면 상하이나 홍콩의 감염증 정보를 많이 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어떤 병이 나왔다’ 라는 정보는 있지만, 제 인상으로는 상당히 산발적이고, 정보 네트워크가 생겨났다고 하기엔 어려운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870 년대부터 80 년대 부근입니다.

이에 대해, 아마도 정보를 파악하고 있던 건 영국 영사의 네트워크라고 봅니다. 시기에 따라선 일본 국내의 감염병 정보보다도 영국 영사 정보 쪽이 일본국내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상하이나 대만과 같은 다양한 지역을 포함해 영국 영사는 늘 정보교환을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일부를 신문 등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정보 공유가 시도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보고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영국 영사보고나 영사 사이 연락 등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세번째 지적, 한성민 선생님의 ‘감염병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했던 적은 없었는가’ 라는 말씀에 대해, 일본은 1870 년대말부터 유럽의 국제위생회의에 대표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방역 스탠다드에 관해 어떻게든 따라가자고 생각하고 있던 셈입니다. 그리고 20 세기에 들어서면 일본은 국제적인 틀을 스스로 만들려 하게 됩니다.

채팅창에 적어 주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만 1910 년대 중국 동북부에서 페스트가 대유행했던 때, 봉천(奉天)에서 개최된 ‘국제 페스트 회의’ 를 일본 주도로 진행하려 시도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 세균학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후일 국제연맹 보건기구 내 일본의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문제로 발전합니다. 즉 유럽과는 다르게, 감염병의 공동전선과 같은 걸 일본이 주도해 만들어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에

대항하자는 게 아니라, 아마도 외교상의, 혹은 상당히 정치적인 움직임과 연동된 형태로 20세기 전반의 감염병대책이 움직였다고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신종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위신종 우선 세 분 코멘테이터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김 선생님께서 저의 이번 발표문과 지난 논문들을 깊이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 선생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매우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 선생님과 소통을 하고자 하니 지속적인 비판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민간과 정부 사이의 역량, 즉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 공권력과 개인의 권리에 대해, 선생님은 그 내재적인 모순을 제기하셨습니다. 저 또한 모순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내포된 상황은 비교적 복잡하며, 전통 시기(근대 이전)와 근대 이후 시기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 사회의 힘을 언급할 때, 사실은 전통 시기의 방역 사례에서 출발한 것이며, 많은 경우 자선적인 성격을 띤 구조와 치료가 중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선적 구조와 치료는 국가 주체로 전개될 수도, 사회 주체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양자 사이의 목표는 일치하죠. 전통 시기의 자선적인 방역 사업은 국가가 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법적인 근거는 없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근대에 들어선 후 상황은 변합니다. 근대 이후 인민의 건강과 생명권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공권력이 방역 사업에 개입되고, 민중의 건강 보호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이념 하에, 국가의 공권력이 자연스럽게 확장되어야 할 당위성을 확보한 것이죠. 그렇게 국가적인 방역 사업은 매우 강한 강제성을 띤 힘으로 변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처럼, 감염자가 도망가려고 해도 구속되고 심지어 공공질서 교란으로 법적인 제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었죠. 이처럼 공권력과 개인 권리 사이의 모순은 뚜렷하며 그 사이에는 모종의 자연발생적인 긴장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방역 과정에는 보통 인도(人道)와 방역 사이의 긴장감이 형성되는데, 이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 돌출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전통 시기에는 방역이 하나의 자선성을 띤 구제였기 때문에 긴장감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문제, 자유와 권리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양에서 기원한 근대 공공 위생 시스템은 오늘날 우리 동아시아, 특히 중국 사회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모로 사색해볼 가치가 있지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중국의 방역 정책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단 전염병에 대한 통제라는 시각에서 볼 때, 맹목적인 낙관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역 과정의 인도와 통제는 매우 명확한 긴장감이 존재하며, 개인 권리의 보장은 어떠한 사회를 막론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개인 권리 주장은 방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전통적인 동아시아 세계에서 개인 권리에 대한 의식은 비교적 빈약합니다. 가령 중국에서는 당연시되는 일부 현상들이 서양의 기준에서는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방역에 국한해서 봤을 때 개인 권리는 ‘양날의 검’ 과도 같습니다. 서양 사회에서 지나친 개인 권리를 강조한다면, 보다 엄중한 사회적 대가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지요. 특히 전염병 사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나아가 동양 사회의 비교적 취약한 개인 권리에 대한 의식은 방역에 유리하지만, 동시에 이는 어떠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을까요? 만약 공권력이 방역이라는 기회를 틈타 합법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팽창되는 기타 권력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여기에도 분명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양자 사이에는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없습니다만, 당면한 형세에서는 양자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국의 미래와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서양인들을 웃어넘기지 않고 더더욱 우리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전통 시기와 근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중국의 전통적인 역량과, 자강의 정신, 내재적 동력을 이해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중국 위생 문제를 연구할 때 느낀 점이라면, 수많은 근대적인 위생 습관들이 중국이나 기타 동아시아 세계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습관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추진되는, 혹은 제도화된 방역 시스템은 서양에서 유입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중국의 자강 정신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실 이 문제는 아까 시오데 선생님이 언급한, 왜 중국 사회가 급격한 도입을 강행했는지에 관련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자세하게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히 이것은 문명이요 진보이며, 또 일종의 과학이기도 해서 근대화에 유리한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실 방역 과정에서 유발된 일부 문제는 서양과 중국, 혹은 일본에서 모두 민중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저항이 발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근대 중국이 봉착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러한 저항은 흔히 일종의 낙후한 것으로, 개량이 필요한 국민성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로직에서 볼 때 중국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 중 하나의 요인으로, 중국의 많은 엘리트 인사들은 국가의 빈약과 치욕의 역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분발하고, 더 많이 서양을 배우며, 그 과정에 압박과 한계가 존재한다고 해도 국가의 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선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국가가 다시 강대해지는 것에 대한 절박한 염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내적 동기로 작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김 선생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번째는 시오데 선생님이 언급하신 주권과 행정권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주권 수호는 중국 사회가 근대적인 위생 방역 시스템을 도입하고 방역 정책을 전개하는 과정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1910년부터 1911년 사이에 동북에서 발생한 페스트에 대해 중국은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근대적인 방역

정책을 전개합니다. 그 이면에는 주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었죠. 당시 방역을 주도했던 조직은 민정부가 아니라 외무성이었습니다. 당시 방역 정책은 외교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중국이 전염병으로 인해 러시아와 일본에 주권이 침해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중국의 근대 위생 방역 시스템 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부분은 저의 보고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시오데 선생님은 온역(瘟疫)이야말로 전래품(舶來品)이라 말씀하셨는데, 저도 매우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저의 생각은, 근대 공공 위생 시스템에 내포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행위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라는 점이지요. 전체적인 사회 대응 시스템, 혹은 정치적 제도라는 시각에서는 분명 서양에서 유래된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메이지 유신 정부 초창기 위생 국장을 맡았던 나가야 센사이는 대표단을 이끌고 영국, 미국,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방문을 계기로 동양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위생에 대해 눈 뜨게 됩니다. 아까 박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는 서양에만 존재했던 것으로, 마찬가지로 서양 또한 근대에 진입한 후 서서히 형성된 시스템이지요. 그리고 온역의 경우, 가령 콜레라는 남아시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흔히 인식되고 있지만, 페스트의 근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연두가 중국 대륙에 퍼진 것도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중국 사람들은 남양에서 유래된 것으로 흔히 생각하고 있는데, 기원 4~5 세기경에 이미 중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콜레라는 서양의 국제무역 루트를 따라 남아시아에서 세계로 퍼져 팬데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콜레라도 분명 전래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전염병과 인류는 늘 공생해왔으며, 온역이나 전염병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전래품이라기보다, 어떤 지역, 어떤 민족에게도 늘 존재했던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양 유래의 근대 공공위생 시스템에 대해 더욱 깊은 성찰을 함과 동시에 인류의 방역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라는 점을 긍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염병을 정복해야 할 적으로 인식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러한 정복 욕구를 더욱 부추기고 있죠. 전염병과 인류의 관계는 평화적인 공생 관계가 아니라 모종의 정복 관계로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념 때문에 장래에 우리는 더욱 큰 위기에 노출될 수 있죠. 현재 인류가 규명한 미생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생물 총체의 1억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마 영원히 전염병을 이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존 위생 방역 시스템, 그리고 인류와 전염병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사유해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의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세 분 발표자께 마지막 대답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5분 이내에 자유토론을 마쳐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 질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향후 연구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공유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한민

아까 시오데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고 중간에 채팅창을 통해서 아오야마 선생님이 코멘트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청국 이사관(理事官)과 조선 해관의 세무사(稅務司)와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아오야마 선생님이 채팅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근대적인 기구이면서 조선 측에서도 한번도 제대로 운영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청국 총세무사 로버트 하트(Robert Hart)의 지시를 받아서 파견되는 세무사입니다만, 조선 측에서도 외무성(外務省)에 해당하는 외아문(外衙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감독을 받는 조선해관 총세무사(總稅務司), 세무사가 각 개항장에 주재하였습니다. 청국에서도 조선 개항장에 영사에 해당하는 이사관(理事官)을 두고 있었는데, 이사관과 조선해관 세무사 사이에 상하관계(上下關係)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사(稅務司)는 조선 외아문으로부터 지시와 감독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던 만큼, 청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명령을 받아 지시사항이 관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해관 운영 과정에서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청국 상인의 홍삼(紅蔘) 밀수출 단속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개항장에서 콜레라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번 발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해관 세무사(稅務司), 조선 개항장의 감리(監理), 일본 영사(領事), 청국 이사관(理事官) 등이 검역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두고 협의를 진행해 나갔다는 점에서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 영향력이 개항장 검역 과정에서 관철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개항장 검역과 관련해서는 좀 더 다양한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 그 속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해 나가고 있었던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시간 관계상 주로 개항장 내 일본인 거류지를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 문제를 제한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1887년부터 조선 해관에서도 임시이기는 하나 검역규칙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청국 해관이나 일본 해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던 검역 규정을 조선 해관에서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수용하였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부분은 없는가 등에 대해서도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구자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향후에 한중일 연구자들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접근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남기정

감사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쉰 웨이귀 선생님, 죄송하지만 발언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쉰 웨이귀

방금 위 선생님이 중국의 방역에 있어 국가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기실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번 동아시아 3국은 보편적으로 서양에 비해 잘 하고 있는데 유교적인 사상과 관련이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전염병과 글로벌화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위 선생님이 언급하신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에서 기원원년 지구에는 4개의 전염병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현대의 전염병은 일단 한 번 폭발하면 곧바로 전지구적인 질병으로 전환돼요. 제1차 세계대전기의 스페인 독감, 조류독감, 에이즈, 사스, 그리고 현재의 신종 코로나 등은 모두 글로벌 성격을 띤 전염병입니다. 지역성을 띤 전염병이 빠르게 전지구적인 것으로 변화하여 가는 상황에서 각 국은 어떻게 공동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 모두 논의해야 할 문제로, 이번 신종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도 국제간 협력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입니다.

■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바로 마무리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송즈용 선생님께 총괄을 부탁드립니다.

■ 총괄

■ 송 즈용 발표자, 코멘테이터 그리고 이번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회의 모두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전염병 관련 연구자가 아닌 제가 중, 일, 한 최고 학자들의 훌륭한 보고에 대해 논평할 자격이 없지만, 저의 개인적인 감상과 느낌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회의의 주제 설정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2016년부터 중·일·한 3국 국사 대화를 위한 원탁회의를 열어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는 매우 의미 있고, 주제 설정에서도 시대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사회적 수요에 입각한 이번 회의를 통해 조직한 주최측과 역사 연구자들의 책임감을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논의 주제는 '20세기 동아시아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이 우리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런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19세기 동아시아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을 주제로 한 회의를 통해, 전염병 발생과 유행이 중·일·한 3국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 대책을 논의하고, 동아시아 3국의 과거 방역 경험의 교훈을 회고했는데, 이는 학문적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학자들의 책임의식이 느껴지고, 학술연구와 사회적 요구가 잘 어우러진 이번 회의성고가 오늘날 전염병 시대에 참고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번 마닐라 회의에서 박한민 교수와 베이징대 귀 교수가 동아시아 페스트 문제를 언급하고, 특히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께서 마지막 모두발언에서 동아시아의 전염병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새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미타니 선생님은 "이번 토론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전염병의 경우 초국경적인 문제이며,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 만연 방지를 위한 각국의 대응책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미타니 선생님께서 당시 어떻게 그런 선견지명을 갖게 됐을까, 이번 회의를 통해 특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19 세기 동아시아 전염병의 유행과 사회적 대응’ 을 둘러싼 세 분 교수님의 논문 발표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한국의 박 교수님은 “개항기 조선의 콜레라 유행과 검역” 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일본의 이치카와 교수님은 “19 세기 후반 일본의 전염병 대책과 통상 항구” 에 대해, 그리고 중국의 위신종 교수님은 “중국 위생 방역의 근대적 변천과 성격” 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이 세 보고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동아시아 3 국의 전염병 대책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모두 특징이 명확합니다. 위신종 교수님은 전통 시기에서 근대 이후의 공공 위생 관념과 제도의 도입을 다루면서, 중국 사회가 어떻게 소극적인 전염병 대책에서 적극적인 방역 정책으로 전환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서도 같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동아시아 3 국은 전염병 대응 면에서 지극히 중대하고 공통적인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언급하셨듯이, 바로 전염병 대책과 주권국가에 관련한 문제이죠. 시대는 이미 19 세기에서 21 세기로 넘어왔지만, 이러한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의 영역으로 남아있고, 부단히 새로운 형식으로 존재해왔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통해, 19 세기 동아시아의 복잡한 주권과 행정권 문제가 전염병 대응에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1 세기 이 시점에서 방역은 여전히 주권국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죠. 비록 WHO 와 같은 기구가 각국의 방역을 지도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들은 강제적인 권력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효력 면에서 많은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정치 체제도 방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명, 인권, 자유, 평등에 관련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지도 모르지만, 모두 노력해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 분의 발표자와 기타 코멘테이터 선생님들의 발표, 그리고 류지에 선생님의 짜임새 있는 논점 정리를 통해, 저는 이번 국사 대화의 취지와 목적이 이미 달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회의는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회의 주최측 및 발표자 분들의 많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카시 선생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아카시 야스시 저는 전문적인 코멘트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오늘 일중한 3 개국 공통 문제로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떻게 근대의 3 국이 대응해왔는가에 대해 대단히 유익한 견해를 발표해주시고, 또한 적극적인 코멘트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는 건 최소한으로 하고자 합니다만,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지금부터 더더욱 글로벌한 시점을 잊어선 안 된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몇 분이 이와 같은 생각을 표명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각각의 나라, 각각의 지역과 문화 및 사고방식이, 공통 문제인 코로나에 대해 다른 시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것을 모으는 사고방식, 일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멀티라터럴 (multilateral) 한, 가능한 한

글로벌한 시점에서 해결책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 트럼프가 대표하는 듯한, 상당히 한쪽으로 쏠린 쇼비니스트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상호의, 공통적인 방식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진 게 아닌가, 저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는 중국 우한지역에 출현했고, 중국 작가인 팡팡(方方)씨가 ‘우한일기’를 출판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팡팡씨는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저지른 잘못을 상당히 솔직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신형 코로나 발생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단계에선 구미가 더욱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듯이 보이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개개 방식의 특징에 입각하면서도 다른 나라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더 생각함으로써 향후 코로나 해결에 다가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로 중국 방식은 당초 비밀주의, 권위주의 측면이 상당히 강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시점에 보면 구미쪽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에 당면해 헤매고 있는 듯합니다. 동아시아 시점에서 보자면, 중국적인 방식, 그리고 한국도 신형 코로나와 대면해 감염자와 사망자가 현저히 적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처음 단계에 일본적으로 하자고 하여, 어느 정도 성공했던 듯이 보였습니다만, 지금 보면 일본 방식은 지나치게 타협적이라 그다지 성과를 올리지 못한 특징이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신형 코로나 문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배울 점도 있겠습니다만, 향후에도 여전히 큰 문제일 테니 각각의 시점에서 우리들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다른 점을 더 배워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의 유효한, 글로벌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다소 낙관주의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관적인 관점에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어려워집니다. 희망을 미래에 구하면서도 우리들의 방식을 더더욱 유효한 것으로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서로의 시점을 비교해 상호 분석하려고 하는 이 그룹의 문제의식은 장래적으로, 또한 지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남기정 네, 감사합니다. 미타니 선생님 폐회 인사 부탁드립니다.

■ 폐회인사

■ 미타니 히로시 오늘은 온라인입니다만 유의미한 연구회를 열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송즈용 선생님의 총괄과 아카시 선생님의 코멘트에서 이미 충분히 거론됐습니다만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팬데믹은 ‘글로벌한 문제’와 ‘국경의 분단 문제’ 양쪽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저로서는 상당히 흥미 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각국이 하고 있는 건 이 중에 ‘분단’ 쪽입니다. 즉, 국경 폐쇄, 국내에서는 소셜 디스턴스.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분단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인류가 면역을 획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류는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대량사망이라는 형태로 해결해 왔습니다. 즉 약한 사람이 전부 숨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면역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나라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을 면하려면 결국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백신을 개발하고 전인류에게 보급하려면 결국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폐쇄의 발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걸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와 같은 주제를 제안한 이유입니다.

국가를 넘어,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건 일상적 무역으로 분명히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감염병처럼 나쁜 걸 공유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분야의 중요한 연구가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이상전부터 이뤄져 왔습니다.

윌리엄 맥닐이 쓴 ‘전염병의 세계사 (疫病と世界史)(주코문고)’ 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전 이 책을 십수년 전에 읽고 훌륭한 연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선 당시 ‘이런 연구가 있고 중요하다’ 고 해도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의 사람들, 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중요성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번에 참여해주신 한국의 김현선 선생님은 예전에 상하이의 한 회의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셨고 후에 ‘서로 울림을 주는 동아시아사 (響き合う東アジア史)’ (도쿄대학출판회) 라는 일종의 역사논문집에 훌륭한 논문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훌륭한 코멘트를 해주셔서 저로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론으로 얘기를 되돌리면, 이번에 눈에 띈 것은 감염병이라는 문제보다, 그 사회적 영향에 관심이 집중됐다는 겁니다. 특히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만 국가이외의 사적인 네트워크도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궁금해진 건, 예전이나 지금도 그러합니다만, 국가가, 혹은 공적인 기관이 (WHO 를 포함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죽습니다” 라고 하는 걸 절대로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국가가 이걸 납득시키는 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라 해도 대만처럼 대단히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혹은 2020 년 봄 일본에서도 국가는 단순히 요청한 것뿐이었지만 국민은 자발적으로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상 지난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지. 이런 문제를 제대로 연구하는 게 의학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자나 역사가의 임무일 거라 생각합니다. 결과를 보고 ‘이쪽이 좋다’, ‘저쪽이 나쁘다’ 와 같은 걸 말하는 게 학자의 역할은 아닙니다.

이때 국가간 협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9 세기에는, 예를 들어 이번에 다뤄진 문제로 말하자면 개항지입니다만, 상하이나 인천, 그리고 고베와 같은 개항지 사이의 협력관계는 어땠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협력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답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전세계 나라들이 그걸 비웃을 권리가 있을지, 불충분한 국가간 협력은 역시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회의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국가와 국가의, 혹은 민중과 민중 사이의, 학자와 학자 사이의 협력관계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국사들의 대화’ 라는 회의는 원래 ‘동아시아에서는 국경에 의한 분단이 너무 심각하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까’ 라는 게 주제였습니다. 이번에 나라별로 발표가 이뤄졌습시다만 그 가운데서 국경을 넘은 현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국가를 넘어선 연계도 부분적으로는 존재해, 이를 향후에도 이어가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습니다. 이는 삼국의 역사연구자가 함께 만남으로써 처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온라인이라는 점에서 조금 한계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실제로 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의 역사라는 건 지금까지 세계 역사 속에서 마이너한 분야였다고 생각됩니다. 저 자신도 정치사를 해왔습니다만, 만약 지금의 제가 20 대나 30 대였다면 절대로 이쪽 분야, 감염병만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환경사라는 분야로 자신의 연구 주제를 옮겼을 겁니다.

감염병 연구라는 건 불가피하게도 글로벌하게 생각하게 해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미생물이나 동물이라는 다른 생물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하고, 더욱이 그러한 연구는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세계의 역사학이 크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정치사는 이제 질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버릴 수는 없겠지요. 그건 최근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본고장이라는 미국에서 엇그제와 같은 일 (2021년 1월 6일, 미합중국의사당 습격사건) 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여기서 이 반세기 동안 인문학 세계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마이너스적 영향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국가나 공공의 문제라는 게 이데올로기 폭로 문제로 바뀌치기 돼, 이걸 잘못된 거다, 저는 쪽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공공문제를 하나하나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여전히 필요하고, 더더욱 필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문제로서 생각해야 할 최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건 환경문제이고 그 일부에 감염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학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이번 회의가 출발점이 된다면 저로서는 더이상 기쁜 일은 없습니다.

팬데믹이 ‘전화위복’ 과 같은 기회가 되기를 빕니다.

예정보다 훨씬 더 말씀드리게 돼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멤버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번역과 동시통역을 해주신 분들께. 지금의 저처럼 불규칙적인 발언도 많았습니다. 그걸 제대로 통역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와 자금을 지원해주신 아쓰미재단에 감사 말씀 올립니다. 특히 이마니시 준코 상무이사와 새롭게 오신 미야케 아야씨. 실은 어제 준비회의에서, 저는 ‘여기까지 준비가 돼 있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일입니다. 대규모 회의에 참가할 때마다 ‘이 조직은 고생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만, 온라인이 돼도 이렇게 고생할 줄은 어제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

아쓰미재단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쓰미재단의 전 장학생, 라쿤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관계자의 한사람이긴 합니다만, 참가자의 한사람으로서 발표와 논의를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청중 대표로서 지금 말씀드린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귀중한 기회를 살려, 이번에 온라인으로 대면한 분들이 지금부터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연구상의 연락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길어졌습니다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저의 뇌 용량의 한계입니다. 많은 분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컨택트 시대에 적응된 뇌를 어떻게 언택트 시대의 뇌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숙제 같습니다. 화면 두 개와 채팅창을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모임이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누구와 함께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지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의미를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쿠보 다케하루 게이오대학 [원문은 일본어. 번역 : 민 동엽(도쿄대)]

저는 일본과 네덜란드와의 관계를 기축(機軸)으로 한 동양정치사상사, 비교정치사상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사상사의 관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주권적 권력과 공중 위생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있어 몇몇 정치학자들이 역병의 만연과 관련해서 주목한 고전으로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를로 긴즈부르그 등의 도상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저자 홉스의 지시 하에 판화가 아브라함 보스가 그린 『리바이어던』의 유명한 표지 그림에는 역병 페스트의 방역에 임한 두 의사의 모습이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17세기의 잉글랜드를 포함한 유럽은 잦은 페스트 감염 확대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홉스가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한 1603년은 페스트가 대유행한 해였습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나타나 있듯이 사람들이 역병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가운데 주권적 권력은 존재감이 커졌고 그 존재 의의는 확실해졌습니다.

이는 정부, 국가 권력이 공중 위생이라는 이름 하에 긴급사태선언이나 록다운을 발령하고 사람들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대 사회와도 같습니다.

공중 위생과 주권적 권력의 행사는 밀접하고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며 병역의 만연이라는 상황은 또 주권적 권력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세 분의 발표 주제인 콜레라가 유행한 19세기 후반은 동아시아에서의 근대국가의 형성기였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역병의 만연에 대응한 공중 위생의 확립과 근대국가로서의 주권적 권력의 형성은 밀접하고 불가분한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관심으로부터 각각의 발표에 대해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한민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

박한민 선생님은 1880년대 말 조선의 개항장 세 곳에서, 특히 콜레라 예방 검역을 실천하는 일본영사와의 행정권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과 협조에 대해 검토하셨습니다. 특히 발표문 8쪽에서는 부산항에서 거류지 감염병의 유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일본 관리가 조선인들보다 우위에서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은 ‘자국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이해되었다, 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당시 조선에서 얼마나 ‘주권’ 개념이 형성되어 있었고, 의식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19세기 후기 조선의 외교는 속국 자주라고도 불리듯이 종래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의 청조 중국과의 사대주의를 기초로 해서 전개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박한민 선생님의 발표에서도 외국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청조 중국입니다. 개항장에서의 콜레라 예방 행정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대치했을 때, 과연 당시의 조선 정부는 어느 정도 독립한 근대국가로서, 주권적

권력 하에 공중 위생을 실현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존재한 것은 종래의 조선과의 사대주의를 지키려는 청조 중국과 조약 외교로 동아시아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확립시키려는 일본 사이에서의 외교적 줄다리기였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치카와 토모오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

이어서 이치카와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질문이라기보다 감상과 코멘트가 되겠습니다. 이 코멘트를 듣고 이치카와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치카와 선생님 발표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일본 개항장에서는 당초 거류지에 사는 서양 열강의 주민들이 위생 회의 등의 자치 조직을 만들어 대응했지만, 독일의 코흐 밑에서 배운 기타자토 시바사부로(北里柴三郎) 등이 유럽의 첨단 세균학 연구를 일본으로 들여와 공중 위생 행정을 맡게 되면서 일본 측의 일원적인 통치가 실현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저는 막부 말 메이지 시기 메이지 정부에 의한 토목기술 정책, 토목공학, 특히 하천과 수리사업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9 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 유럽 국가들의 조차지가 된 상해, 대련, 교주만, 광둥, 홍콩은 열강의 ‘비공식 제국’의 중계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곳에는 본국의 식민지 엘리트 관료가 확고한 인재 등용 시스템 속에서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는 달리 구미 열강의 식민지나 반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지 정부는 유럽 국가들의 군사 및 토목기술의 도입과 국제항의 축항, 국내 교통의 정비 등, 모든 것을 자신들의 재원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이를 담당시키기 위해 초청한 것이 이른바 고용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계의 여러 식민지를 돌아다닌 경험 많은 ‘제국의 기사(技師)’나 우수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학문이나 과학기술의 근대화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극동의 나라에 고용된 그들은 결코 유럽의 초일류 학자나 기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지 10 년이 되면 메이지 정부 측에서 유럽 국가에 파견해 거기서 수년 간 유학하고 서양의 최첨단 학문기술을 체득한 일본의 유학 경험자들의 기능(技能)이 오히려 뛰어나게 됩니다. 전형적인 예가 기타자토 시바사부로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메이지 일본은 서양 국가들로 많은 유학생을 파견하여 서양의 첨단 법학 및 의학, 과학기술, 통치론을 섭취함으로써 일본의 거류지에 체류하는 서양인과의 행정권 다툼을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하고 주권적 권력을 확립시킬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대 일본은 유학생을 통해서 서양의 최첨단 학지(學知)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지리적인 편차를 활용해 동아시아에서의 서양 열강의 세력과 대치하고 주권적 권력으로서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이치카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신종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

위 선생님의 발표에서는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중국의 공중 위생 관념의 발달과 위생 면역 시스템의 변용에 대해 조명하셨습니다. 위 선생님은 청조 전기의 전통적인 위생 관념과 청조 말의 근대적인 위생관념의 연속과 불연속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위생’이라는 말은 원래 『장자』에서 유래하는 것인데, 이것을 막부 말 시기 난학자 나가요 센사이(長与専齋)가 근대적인 의미로 바꿔서 번역어로 정착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공중 위생’이라고 할 때의 ‘공중’이라는 관념입니다. 영어로 공중 위생은 Public Health입니다만, 과연 19세기 후기, 청조 말 위생 행정에 있어 이 ‘공중’ Public은 어떤 존재, 범위로 생각되었던 걸까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공중 위생 행정은 주권적 권력 관념과 밀접하고 불가분한 관계에 있습니다. 공중 위생 시스템의 ‘근대적 발전’을 밝히기 위해서는 과연 청조 말기에 정치의 주권적 권력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라고 생각되었는지, 그것은 티베트나 몽골도 포함한 것인지, 또 그 대상이 되는 자국민, 국민은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어느 범위가 상정되었는지를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대 중국의 국민 의식 형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2) 공중위생과 민중의 반응에 대해서

두 번째 논점은 정부의 국가 권력 행사로서 실시된 공중 위생 행정에 대해 민중의 반응이 어땠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이지 시기 일본에서 콜레라 환자는 피병원(避病院)으로 격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자들은 서양식 병원에서 서양인 의사에게 산 채로 간을 뽑히고 그 간은 해외로 팔린다”는 소문, 유언비어가 무성했습니다. 이렇게 콜레라에 대한 공포는 메이지 정부의 공중 행정이나 서양의 이방인에 대한 적시와 연결되어 콜레라 붕기(一揆)로 발전했습니다.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역병, 감염병에 대한 공포는 수많은 소문과 페이크 뉴스를 산출하였고, 그것이 민중을 극단적인 행동으로 부추기고 사람들 간에 분단과 차별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공통 테마에 ‘사회적 반응’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만, 세 분 발표자 선생님의 논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19세기 조선, 일본, 중국 각각의 나라에서 감염병 유행과 방역 실시가 민중 사이에 어떠한 반응을 낳았고 정부나 학자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발표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카이 마사키 도시사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민 동엽(도쿄대)]

세 분 선생님의 발표에는 국가 및 지역의 장벽을 넘어선 협력을 통해 콜레라에 대처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의미있는 역사적 발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콜레라의 위협이 국가나 지역의 분단이라고 할까요, 사람과 사람의 경계선을 뚜렷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일은 없었는지요. 이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같은 방식의 국가를 넘어선 협력 관계(EU 에서 의료 붕괴한 나라의 환자 수용) 도 많이 있었지만, 동시에 여러 국면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의 분단(예: 구미에서의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 등)을 초래하고 만 사례도 있습니다.

19 세기 말은 한중일 3 국에게 있어 오늘날과 이어지는 민족 의식의 형성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민족 의식 형성이 콜레라 유행과 관련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자 선생님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간접적이지만 콜레라 유행과 민족 의식 사이에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메이지 일본의 후쿠오카경찰서장이었던 유지 다케오(湯地文雄)와 서양화가 야다 잇쇼(矢田一嘯)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카타에 '원구기념비(元寇紀念碑)'를 세우려는 계획이 진행되었고 20 세기 초에 완성되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이른바 과거의 '몽고원구(蒙古元寇)'의 역사 기억을 상기시키고 외국에 대한 위기 의식을 높임으로써 일본인의 민족 의식의 강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유지 다케오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선진적인 해군을 건설하고 있던 청국이었습니다.

당시 1886 년에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나가사키 사건(나가사키에 상륙한 청국 수병과 현지 경찰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하카타에서의 콜레라 유행입니다. 유지 다케오는 후쿠오카 경찰서장으로서 콜레라 사태에 대처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려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오래 전에 하카타를 습격했던 '몽고원구'의 광경이 떠올라 '원구기념비' 운동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다만, 유지 다케오 외의 일본인이 모두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니었고 '원구기념비' 운동에 대해 차가운 태도를 보인 일본인도 많았다고 합니다. 유지 다케오에게 찬동한 야다 잇쇼가 그린 유화 '몽고습래회도(蒙古襲來繪図)'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전국적인 모금 행각을 계속해 1904 년에 '원구기념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서서히 일본 국민의 민족 의식이 자극되었고 또 높아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히라야마 노보루 가나가와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민 동엽(도쿄대)]

◆감염병 = '국사' 를 넘지 않을 수 없는 주제

감염병 그 자체는 인류에게 굉장히 곤란한 것이지만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서는 이만큼 재미있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세 분 선생님들의 논문에서 일본, 중국, 한국(조선)이라는 근대 국가의 틀로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역사상(像)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한민 선생님 논문】과 【이치카와 선생님 논문】에서는, 조선의 중앙 정부가 통일적인 개항장의 방역 규칙을 정비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개항장 별로 외국 관리와 현지 관리, 그리고 거류민 사회의 협력 관계 방식이 서로 달랐고, 그로 인해 대책 상황이 달랐다. 그래서 감염병 대책을 세우는 현장에서 국가를 넘는 협력이라는 점을 보면 ‘일본의 개항장 / 조선의 개항장’이라는 차이보다도 ‘요코하마, 고베, 나가사키, 원산 / 인천, 부산’의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일본 영사관이라고 해도 조선 관리 측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시해 마찰이 생겼던 부산의 일본 영사관과 조선, 청국과 협의, 공조가 가능했던 원산의 일본 영사관과는 크게 다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감염병 대책에 직면한 19세기 동아시아의 개항장은 일본 / 조선 / 청국이라는 국가의 제도적 틀(거류지 제도 등)보다도 각 개항장의 인적 네트워크나 의료, 위생 인프라와 같은 개별 요인으로 인해 규정되는 면이 컸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19세기 감염병 대책의 역사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국사를 넘어서는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또한 【위신중 선생님 논문】은 넓은 시야에서 개괄한 것인데, 중국의 개별적인 개항장의 사례 소개는 하지 않으셨지만 중국 역시 조선이나 일본과 같이 개항장 별로 큰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세 분 모두】에게 여쭙고 싶습니다만, 동아시아의 거류지 미디어의 정보 전달은 어떤 식으로 기능하고 있었나요? 토론자이신 시오데 선생님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서로 다른 거류지(상해-요코하마 등) 미디어 간에 상호 참조 및 논의 연환(連環)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1866년의 콜레라처럼 국경과 상관없이 확대되는 감염병 대책에 다른 거류지의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각자의 전통사회적 가치관에서 봤을 때, ‘감염병으로 죽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나요?

【위신중 선생님 논문】에서 “역병에 감염되는 것은 스스로 천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해 오지 않았다” “전통적 요소와 그 영향력이 있었던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가치관에서 보면 ‘감염병으로 죽는 것=피해야 할 것’이겠지요. 하지만 근대 과학, 의학이 널리 일반 서민에게 ‘당연한 규범’으로 정착하기 이전에는 다른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전근대) 사회의 가치관’과 감염병 대책과의 조우 및 상극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통(전근대)’이라고 적었습니다만, 이러한 가치관은 현대 세계와도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정월 하쓰모데(初詣: 신년 참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월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후 처음으로 하쓰모데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약 100년 전 ‘스페인 독감’

때는 예년과 다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신사 또는 절로 하쓰모데를 갔습니다. 정월은 아니었습니다만, “스페인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신사, 절로 기원하러 가는 사람들로 전철이 만원” 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미 정부나 지식인들이 마스크 착용 및 밀집 회피 등의 근대 과학에 기초한 대책을 지시하고 있었습디만, 많은 서민들은 이에 따르기보다는 ‘밀집(密)’ 하게 되더라도 신사나 절에 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병이 들면 기도, 기원한다’ 고 하는 전통적 행동 양식 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것처럼 ‘죽음(死)’ 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각각의 지역, 각각의 시대, 각각의 사람들에게 ‘감염병으로 죽는다’ 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현대적인 선입견을 되도록 개입시키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역사학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 태구 가톨릭대

제 5 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는 19 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 이란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 제출된 박한민, 이치카와 토모오, 위신종 세 분 선생님의 논문은 저에게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pandemic) 상황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치명적 전염병의 유행이 개항장·개항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위생·방역 대(對) 행정권·주권의 충돌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점도 흥미로웠고, 전염병 극복과 대처라는 주제를 탐구할 때 한 사회의 전통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논점도 재미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염병을 초래한 세균과 바이러스가 인간이 유사(有史) 이래 설정한 모든 인위적 구분과 차별·국경, 인종, 민족, 빈부(貧富)-을 초월하거나 무력화했고, 그 결과 공동의 대응을 가져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세균과 바이러스의 눈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하나의 숙주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아쓰미국제교류재단 글로벌연구회(SGRA)가 지속적으로 주최해 온 원탁회의가 한국·일본·중국 간의 역사 대립과 갈등을 무력화하거나 완화하는 촉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뎀 루이충 게이오대학

[원문은 일본어. 번역: 민 동엽(도쿄대)]

2020 년에 전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인류 사회에 헤아릴 수 없는 위기를 가져왔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인류 사회의 미래가 걸려 있다. 여기서 몇 가지 비견(卑見)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자국의 감염 확대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국으로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각국 지도자의 리더십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각 개인도 자신의 행동을 자각해야 한다. 둘째, 백신 개발 등의 국제 협조, 글로벌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불가결하다. 이야말로 인류 사회와 관련된 인간의 안전보장 문제이다. 셋째,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 관계자와 과학자에 대한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한다. 넷째, 감염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구조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긍정적인 생각 (positive thinking)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Zoom 등을 이용해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해졌고, 타지역 또는 외국의 연구자와의 교류가 오히려 간단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리모트 워크로 인해 종이 소비가 줄었고, 결과적으로 삼림 채벌의 감소,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한 번 멈춰 서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건 아닐까 생각된다.

쑨 웨이귀 남개대

[원문은 중국어. 번역 : 홍 용일(도쿄대)]

또 한 번 아쓰미재단이 주최하는 중일한 국사 대화 ‘19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에 참가하게 되어 기쁩니다. 온라인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의 학술적 의의와 현실적 가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의료질병사 연구에 익숙치 않습니다만, 여러분의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분 선생님의 주제 보고와 현재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상황을 결부시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는 현재, 이번 회의는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개최되었습니다. 세 편의 논문은 중·일·한 삼국이 전통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역병과 삼국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신종 교수가 논의하는 과제는 보다 거시적인 시점에서, 박한민 선생님과 이치카와 선생님은 모두 19세기 후반 조선과 일본의 방역 상황과 정부의 대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모두 전통에서 현대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병의 위협에 직면한 삼국의 사회 메커니즘의 변화와 그 효력을 엿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주제에는 의료기술, 정부 거버넌스, 사회활동 등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데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에도 참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근대 삼국의 방역 대책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료 및 제약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대응 메커니즘과 국가적 동원 능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염병의 유행은 일반적인 병과 크게 달라서, 유행이 빠르고 감염 폭이 넓기 때문에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회적 역량을 살려 전염병을 최소한의 범위로 억제시켜 급속한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지요. 인천에서 발생한 콜레라도, 일본 각 항구도시에서 발생한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에 직면해 있는 현재, 우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양의 많은 선진국이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빠른 시간 내에 예방에 치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섭취하여 수개월의 철저한 사수를 거쳐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실행함으로써 마침내 전염병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예방과

철저한 격리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 부분에 대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지요.

세 번째로, 이 세 편의 논문 모두 동아시아 삼국이 근대적 전염병에 직면했을 때, 방역 시스템 구축을 서양 국가로부터 배우는 과정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양국가들은 동아시아 삼국의 선생이자 학습 및 모방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동아시아 삼국의 대응책은 보편적으로 서양 선진국보다 우수한데, 이 역시 새로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차이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는 유교 정신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혹은 다른 정치·사회적인 맥락 및 이유가 존재하는지 등에 관한 질문이지요.

네 번째로, 이 세 편의 발표는 모두 국가를 단위로 19 세기 각국의 전염병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일본과 조선의 관련성도 엿볼 수 있지요. 지역성 전염병은 해당 지역 혹은 한 나라를 동원(動員)하면 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윌리엄 맥닐의 말을 빌린다면, 서력기원이 시작될 즈음 세계는 '네 개의 질병 권역'을 형성했으나, 글로벌화와 교통 기술의 발전에 의해 지역성 전염병은 곧바로 전 세계에 확산됩니다. 제 1 차 세계 대전 기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 그 후의 조류 독감, 에이즈, 오늘날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등은 모두 세계적인 전염병이며,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맥닐이 『전염병의 세계사』^{주)} 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려고 하듯이 필사적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면, 전염병의 영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기능, 지식, 조직은 바뀌지만 전염병에 직면했을 때의 인류의 취약성은 바뀌지 않는다. 인류의 탄생에 앞서 발생한 전염병은 항상 인류와 함께 존재하고, 인류사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요,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예언 같은 이 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여 기승을 부리는 오늘날 상황에 대한 가장 적합한 '주해(註解)'라 생각됩니다. 전염병의 폭발이나 유행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요. 인류는 최종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겨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효율적인 사회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지가 중요하지요. 예방을 보다 국제성을 내포한 것으로서, 각국 사이에 어떻게 효율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글로벌 방역 사업의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주) 威廉·麦克尼尔：《瘟疫与人》第六章《近代医学实践的影响：1700年—》，余新忠、毕会成译，北京：中信出版集团，2018年，237쪽.

평 하오 오사카시립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 민 동엽(도쿄대)]

역병의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중세 후기 유럽에서 페스트가 긴 세월 지속적으로 유행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베네치아 마르세유와 같이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항만 도시, 산업 도시가 가장 감염되기 쉬운 곳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역병 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했다. 하지만 내륙 도시나 농촌보다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감염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억제하면서도 사람들의 이동을 허용하는 대책 만들기에 필사적이었다. 이를 배경으로 14세기 후기 여러 항만 도시에서는 감염 지역으로부터 내항하는 배에 승선한 채로 일정 기간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것이 현대 입국검역제도의 기원이라고 한다. 또한 이동할 때마다 격리 및 검역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격리 후에 헬스 패스(건강증명서, Health Pass)를 발행하는 제도도 도입되었다. 광범위한 헬스 패스의 사용 또한 근대적 여권제도를 수용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했다고 생각된다.

제도의 혁신이라는 시점에서 질문하고 싶다. 논문을 읽고, 19세기 후기 동아시아에서의 콜레라의 감염 확대가 일본, 조선에서의 검역 제도의 생성, 달리 말하면 검역 제도의 근대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인상을 받았다.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당시의 콜레라 대책은 한중일 삼국의 검역 제도 창설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당시 해외로부터 제도를 이식하거나, 혹은 제도 창설에 있어 그것을 참고하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야오 케이스케 기타큐슈시립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 민 동엽(도쿄대)]

이치카와 선생님과 박한민 선생님의 논문은 거류지와 국내 사회라는 이원적 공간을 다루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콜레라와 마주하는 일’이 ‘근대 혹은 구미와 마주하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치카와 선생님 논문에서는 일본과 조선의 차이는 불평등조약의 조약 개정이 ‘가능했던 일본’과 ‘불가능했던 조선’으로 귀결되는 듯하다. 그렇다면 일본측의 적극적인 방역 대책이 조약 개정을 쉽게 한 측면은 없었는지 여쭙고 싶다.

박한민 선생님 논문은 일본 영사가 각국의 영사관과 협의는 했지만 본국으로부터의 훈령을 기다리지 않고 콜레라 방역의 검역 규칙을 제정하려고 했던 인천, 조선, 청국, 일본 삼국의 관리 간에 검역 규칙을 위한 공조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원산, 일본 영사관이 각국의 영사관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역 규칙을 시행하려고 했던 부산에 대해 각각 고찰하고 있다. 1895년의 을미사변이나 1928년의 봉천사건에 나타나는 ‘현지의 폭주’와 관련해서 흥미로웠다. 다만, 분석이 일본 외교사료에 의거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인 관리의 ‘활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약간의 의문이 남았다.

근대란 국가가 ‘위생’을 가지고 국민의 신체를 지배하게 된 시대이다. 위신종 선생님의 논문은 근대 국가와 민중과의 통치 관계에 있어 위생 방역이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이 논점이지만, 오키 다케노리(奥武則)나 후쿠시 유키(福士由紀)의 일본 및 중국의 '의료의 논리'와 민중에 의한 '전통사회의 윤리'의 대립 관계라는 시점과는 다르다. 다만 아시아에서의 '전통적 치료'와 '근대 위생 제도'의 융합 가능성은 중국에 한정되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정 제시 영파대학

[원문은 중국어. 번역: 홍 용일(도쿄대)]

박한민 선생님의 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1886년 인천항 임시 검역 규칙이 일본 행정 시스템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마치 현대의 행정 심사 절차와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논문에 입각하여 몇 가지 절차를 정리해보았지만,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 절차에는 아래와 같은 7개 단계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1) 인천의 일본 영사와 각국 영사가 합의하여 임시 검역 규칙이 제정되었다. (2) 이 임시 규칙은 먼저 인천 해관장 대리 쇠니케에게 제출된 후 그의 동의를 거쳐 '해관장 공문' 형식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3) 인천 일본 영사가 검역 규칙을 서류 일본인에게 공시한 것은 즉시 집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의미인가. 7월 15일에 집행할 의사를 본국에 밝혔다는 점은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규칙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4) 검역 규칙 제정에 일본 공사 대리 다카히라 고고로가 미친 영향과 작용은 무엇인가. 인천 영사 스즈키 미쓰요시는 반드시 다카히라를 거쳐야만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에게 검역 규칙을 전달할 수 있었는가, 아니면 다카히라의 의견을 참고한 후 직접 이노우에에게 보고할 수 있었는가. (5)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가 공사 명의로 검역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과 관련된? 처리 방안을 제출한 점은 사실상이 규칙을 인정한 것과 같다. (6) 일본 내각도 처음에는 이노우에의 방안에 동의했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검역 규칙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7) 단 공사가 집행하도록 내각이 훈령을 반포했을 때, 인천에서는 이미 검역 규칙이 집행되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 내각에서 비록 검역 규칙에 동의했지만, 인천 측의 선부른 시행으로 인해 '월권' 행위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월권' 행위가 일본 내각의 불만을 야기시켜 내각 측이 체면 때문에 부득이하게 검역 규칙을 취소한 측면은 없었는가.

콜레라는 급성 전염병으로서, 마치 갑자기 폭발한 전쟁으로 인해 외출 중에 있던 장군이 제때에 군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콜레라가 발생했을 당시 책임자(가령 인천 영사 스즈키 미쓰요시와 같은)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만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데, 스즈키는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복잡한 단계식 보고 시스템은 시효(時効)적인 측면에서 명백한 폐단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역 규칙 제정이 철회되는 인지상정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했는데, 이는 어떤 영향을 초래했는지요? 일본 내각은 당시 콜레라 대유행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은 없을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일본 내국이 검역 규칙을 철폐한 점은 일본 관료주의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당시 각국 정부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임시 검역 규칙에 대해 인천의 일본, 청나라, 미국, 영국 영사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즉시 시행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후 청나라 조정과 미국, 영국의 내각에서도 일본과 비슷한 현상, 즉 선부른 시행으로 인해 나중에 추인(追認) 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는지요?

후기를 대신하여

첫 번째

제 5 회 국사들의 대화 보고

— 전염병의 시대에 전염병의 역사를 돌아보다.

김 경태 전남대

2021년 1월 9일 ‘제5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이 개최되었다. 이번의 주제는 ‘19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 이었다. 2020년 1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 4회 국사들의 대화가 마무리될 때까지만 해도, 아니 COVID-19가 발생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위기가 이듬해 1월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 4회 당시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이 19세기 동아시아의 전염병에 대한 주제를 언급한 것은 선견지명이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에 걸맞은 논의 주제가 되었다.

이번 대화는 온라인(웨비나)으로 개최되었다. 기술의 발전은 이 위기 속에서도 서로 대화할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그러나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새로운 방식을 모두가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실무진들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화에 앞서 수많은 리허설이 있었고, 당일에도 오전부터 준비가 개시되었다. 꼼꼼히 준비해준 사무국에 다시금 감사드린다.

이전 회의에는 여러 발표자와 토론자를 초청하여 2일 내지 3일 간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상 각 국 1명씩의 발표자와 토론자를 초청하여, 집중도와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한편, 시간에 따라 변화는 있었으나, 발표·토론·패널리스트가 50명, 일반참석 93명으로 총 142명이 참여하였다.

대화는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무라 카즈아키 선생의 사회로 세 발표와 지정 토론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남기정 선생의 사회로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모든 세션이 끝난 후에는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친목회도 진행되어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1세션은 이마니시 준코 상무이사의 환영인사로 시작되었고,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인사가 이어졌다. 조광 위원장은 19세기적 팬데믹에 대한 문제의 연구는 21세기 오늘의 상황, 즉 Post-COVID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문제해결에 하나의 전범을 마련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국사들의 대화의 의의가 연속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바람을 첩언하였다.

첫번째 발표는 박한민(동북아역사재단)의 ‘개항기 조선의 콜레라 유행과 개항장 검역’ 이었다. 전형적 전염병인 콜레라는 조선 초기 개항지인 부산, 인천, 원산에서 검역 문제에 고민하게 하였다. 세 개항장은 각 국의 자국민 보호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양상을 보였다. 조선 정부는 경험을 축적하여 1887년 조선 정부 검역 장정을 제정하였고, 1893년까지 이어졌다고 하였다.

이치카와 토모오 (오키나와국제대) 의 두번째 발표는 ‘19세기 후반 일본의 감염병 대책과 개항장’ 이었다. 발표자는 첫 번째 발표와 비슷한 주제 및 문제 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것에 놀라움을 표하면서, 서로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여기서는 일본의 개항장인 요코하마, 나가사키, 고베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본인 사회와 외국인 사회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주목했다. 일련의 갈등을 거쳐, 1890년대 이후 일본 정부의 감염병 대책 일원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세번째 발표는 위신종 (남개대) 의 ‘중국 위생 방역의 근대 변천과 성격’ 이었다. 앞선 두 발표와는 달리 중국에서 위생이 가지는 의미와 실태, 그리고 근대 이후 변화에 대해 거시적인 안목에서 살펴본 연구였다. 또한 현 사태와의 비교를 통해 국가와 지역,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고민거리를 제시해주었다.

이어서 세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이 진행되었다. 지정토론자 역시 세 나라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김현선 (명지대), 시오데 히로유키 (교토대), 친팡 (수도사범대학)) 지정토론에서는 토론 대상 발표를 ‘지정’ 하지 않고 전체 주제를 대상으로 한 토론을 부탁하였기에, 훨씬 폭넓은 논의가 가능하였다. 세 분 토론자는 전통적 위생 방역의 의미, 근대 이후 국가가 방역을 주도하게 되는 과정, 전염병이 가지고 온 구분의 무형화와 함께 위생과 방역을 어느 국가가 주도하는지를 둘러싼 경쟁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식민지에서의 위생과 방역문제 및 국가 단위 아래, 국가와 저변을 잇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이라는 제언도 있었다.

두번째 세션은 자유토론이었다. 자유토론에 앞서 류지에 (와세다대) 의 논점정리가 있었다. 세 발표의 내용과 함께, 사전에 제출된 패널리스트분들의 질문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었다.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통해 퍼져 나가는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적인 방법은 국가의 국경 봉쇄이며 이는 주권의 문제일 것, 그러나 곧 정보의 공유와 국경을 넘어선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 예방과 치료에는 국가-지역-개인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역할이 중요했을 것, 이에 내포된 공존성과 대립성을 어떻게 이해할 지에 대해 접근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여러 패널리스트분들께서 코멘트와 질문을 해주었다. 직접 발언하는 외에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질문해준 분도 있었다. 전염병은 예로부터 정치담당자에 대한 불신감을 불러일으키곤 했고, 따라서 근대 이후에도 전염병은 국민의 정치의식 및 그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주권과 전염병 사이의 역학 관계, 각국의 민중의식 및 민족주의 고양과의 관계, 전염병 유행시 세 나라의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양상 등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꼼꼼한 답변이 있었고, 지정토론자와 패널리스트의 보완 코멘트가 이어져,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다.

자유토론의 아쉬움을 남기면서 송즈웅 선생 (남개대) 의 총괄, 아카시 야스시 선생의 코멘트로 이어졌다. 두 분 모두 역사의 한페이지에 남길 만한 시의 적절한 주제의 ‘대화’ 였으며, 우리의 사회적 책임감, 발신해야 할 사회적 메시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 각 국이 보다 더 자유롭고 서로 배우는

입장에서 글로벌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서로의 시점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 모임의 문제의식이라는 것이 미래적 지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남겼다.

회의의 마지막은 미타니 히로시 선생 (아토미학원여자대) 의 폐회 인사였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 다시금 분단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는 것, 이 회의가 국가 - 민중 - 학자 사이의 협력관계를 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 국사들의 대화 취지는 국가간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있으며, 이번에는 온라인이라는 한계도 있었으나, 중요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역사학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데 오늘 회의가 출발점이 되었으면 기쁘겠다는 말씀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번역과 동시통역해주신 분들, 그리고 아쓰미 재단과 장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해주셨다. 또한 오늘 만난 분들이 개별적으로도 앞으로 계속 교류해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하였다.

공식적인 회의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으나, 비공식적인, 그래서 더 자유로운 '대화' 가 친목회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어졌다. 필리핀의 4 회 국사들의 대화에서 만났던 분들은 1년 만에 얼굴을 맞대며 그간의 안부를 전하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었다. 5 회 대화에 처음으로 참여해주신 분들도 금세 서로 친해졌다. 가끔 딱딱하지 않은 공통 주제를 두고, 음료와 안주를 하나씩 준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분량의 한계로 인해 참여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소개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아쉬움은 추후 발간될 레포트에서 떨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사 메일 매거진 「Kokushi Email Newsletter #27」 에서 전재)

제 5 회 국사들의 대화 —전염병의 시대에 전염병의 역사를 돌아보다

김 현선 명지대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19(COVID-19) 로 인해 2021년 1월 9일 ‘제 5 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이 온라인 (웨비나) 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진행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한국·일본 삼국의 19 세기 전염병 유행과 방역에 대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공간을 초월하여 100 명이 넘는 일반 참가자들이 입장하여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질문을 올리기도 하였다. 조광 국사편찬위원장이 개회사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국사들의 대화는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 새로운 방식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反面教師

2020년 코로나가 한국을 뒤덮을 즈음 누군가 나에게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전염병과 방역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를 물었다. 당시 확진자의 경로가 시시각각 우리의 핸드폰에 전달되며 주의를 요하고 있었고, 충분히 준비된 진단키트로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염병과 방역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질병사를 연구하는 나에게 이 질문은 한동안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그에 대한 해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사들의 대화는 불편했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여정과도 같았다.

팬데믹 (pandemic) 이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마련된 국사들의 대화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길 만한 시의 적절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나갔다. 가장 먼저 박한민 선생님 (동북아역사재단) 이 ‘개항기 조선의 콜레라 유행과 개항장 검역’ 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이치카와 도모오 선생님 (오키나와 국제대) 이 ‘19 세기 후반 일본의 감염병 대책과 개항장’ 이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두 발표자는 19 세기 조선과 일본의 감염병 유행과 개항장 검역 과정에 겪었던 문제와 국가 간 마찰을 매우 흥미롭게 보여주었다. 박한민 선생님과 이치카와 도모오 선생님의 발표 논문은 발표자 선생님뿐만 아니라 토론자였던 시오데 히로유키 선생님 (교토대) 도 놀라움을 표현할 만큼 서로 관련이 깊은 주제였다. 조선과 일본 양국의 개항장 검역에 있어 유사한 경험과

서로 다른 방향으로의 전개를 한 공간에서 비교해 가며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삼국의 연구자들이 한곳에 모이는 국사들의 대화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사들의 대화에서는 한국·중국·일본 삼국이 국가별로 발표를 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전염병이라는 국경을 초월한 현상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연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패널들은 19 세기 전염병이 유행할 때 삼국 간에 유럽과 같은 국제적 협력이 존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마지막 폐회 인사에서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아토미학원여자대)은 결국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국사들의 회의가 열린 것 자체가 학자와 학자 사이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 민중과 민중 사이에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언급은 앞으로 계속해서 질병사를 연구해야 하는 나에게 ‘협력’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겨준 느낌이었다.

다음으로 위신종 교수님(남개대)은 오늘날 위생 이미지와 중국의 위생 방역 역사를 통해서 중국의 근대 위생 시스템과 성격을 고찰하였다. 평소 존경하던 위신종 교수님을 온라인이지만 직접 뵙고, 또 선생님의 논문을 토론한다는 것은 신진연구자로서 매우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최근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늘어가는 확진자와 사망자를 보면서 현대적 의미의 방역과 서구의 시스템에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발표는 편협해지는 나의 생각을 깨우고, 여러 각도에서 방역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더하여 토론자 친팡(수도사범대학) 선생님의 상부와 하부 구조를 잇는 공동체에 대한 지적과 시오데 히로유키 선생님의 일본 거류지에서 중국인 문제와 식민지 문제 등 깊이 있는 토론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 류지에 선생님(와세다대)은 감염병을 둘러싼 주권, 행정권과 근대화, 감염병과 인간의 혹은 사물의 이동, 감염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사적 네트워크와 공적 네트워크 문제로 논점을 정리해 주셨다. 곧이어 패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감염병이 민중과 기독교 전파에 미친 영향, 동아시아에서 거류지의 신문 등 미디어에 의한 정보 전달이 어떤 식으로 기능했는지에 대한 질문과 유럽과 같은 방식의 국제 검역 회의의 개최 여부, 코로나가 가져온 긍정적 영향 등 수많은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들의 깊이 있는 질문은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轉禍爲福

미국 공중위생국장이었던 William H. Stewart 는 1969 년에 열린 의회 연설에서 “전염성 질병은 이제 대부분 끝이 보인다” 고 선언하였다. 20 세기 과학과 의학의 발달은 인류에게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게 했다. 하지만 21 세기 인류는 여전히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20 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SARS, 신종플루, MERS, 그리고 코로나 19(COVID-19) 까지 전염병의 위협에

직면하였다. 그때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였지만, 바이러스는 더 빠르게 변이를 거듭하며 너무나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전염병이라는 생물학적 폭탄 앞에서 과학에 그 모든 해답을 물을 수는 없다. 그리고 국사들의 대화는 과거 각각의 국가들이 취했던 방역을 돌아보며, 현재와 미래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역사의 분명한 역할을 확인시켜 주었다.

전염병은 환경파괴, 기후변화, 인간 생활 방식의 변화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염병이 박멸되었다고 환상을 가졌을 때에도 학자들은 여전히 전염병의 위협을 경고하였다. WHO 역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행은 if 가 아니라 when 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언제 또 어떻게 닥칠지 모를 전염병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과 더불어 인류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송즈웅 선생님(남개대)과 아카시 야스시 선생님의 지적처럼 전염병과 같은 인류 공동의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는 과거를 통해 글로벌한 시각과 다국주의적 사고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사들의 대화는 우리의 사회적 책임감과 사회적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였으며, 미래 언제 닥칠지 모를 또 다른 위기에 대해 하나의 전범을 마련하였다.

발표를 마치고 진행된 ‘친목회’의 시간 역시 매우 의미 있었다. 국사들의 대화에 처음 참가하였던 탓에 실상 모두 처음 뵙는 연구자들이었지만, 학문적 호기심과 열정으로 오랜 시간 토론을 이어갈 수 있었다. 친목이라는 단순한 목적을 넘어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가 되었던 시간이었다.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 만난 많은 연구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협력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학문의 장을 넓히고 학자들의 학문적 교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아쓰미 국제교류재단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국사 메일 매거진 「Kokushi Email Newsletter #29」에서 전재)

제 5 회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의 참가기

히라야마 노보루 가나가와대학

[원문은 일본어. 번역: 민 동엽 (도쿄대)]

[※이 글은 원탁회의에 참가한 다음 날 필자의 Facebook 에 투고한 것이다.]

어제 (2021 년 1 월 9 일) 는 Zoom 으로 개최한 제 5 회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3 국의 역사연구자들이 근대사 속 감염증에 대해 연구 보고를 했습니다.

- 박한민 (朴漢珉, 동북아역사재단) ‘개항기 조선의 콜레라 유행과 개항장 검역’
- 이치카와 토모오 (市川智生, 오키나와국제대학) ‘19 세기 후반 일본의 감염병 대책과 개항장’
- 위신종 (余新忠, 남개대학) ‘중국 위생 방역 메커니즘의 근대적 발전과 성격’

감염증은 인류에게 상당히 곤란한 것이지만 역사연구의 대상으로서는 이보다 재미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세 분 선생님의 보고로부터 일본, 중국, 한국 (조선) 이라는 국가의 틀을 기본으로 한 이해가 전혀 통하지 않는 역사상 (像) 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치카와 선생님과 박한민 선생님의 보고 내용에서는, 19 세기 후반 조선의 중앙정부가 개항장의 통일적 방역규칙을 정비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각각 개항장의 외국인 관리와 현지인 관리, 거류민 사회의 협력 관계가 서로 달랐고, 이로 인해 대책 상황도 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감염증 대책을 실시하는 현장의 국가를 넘은 협력이라는 점에서 ‘일본 개항장 / 조선 개항장’ 이라는 국가적 차이보다 ‘요코하마, 고베, 나가사키, 원산 / 인천, 부산’ 이라는 개항장의 차이가 더 뚜렷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일본 영사관이라고 해도 조선인 관리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시해서 마찰이 일어난 부산의 일본영사관과 조선 혹은 청국과 협의, 공조 (共助) 가 가능했던 원산의 일본영사관의 상황은 크게 달랐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원산의 방식을 배우도록’ 이라는 훈령도 있었습니다!).

체험한 바 없는 감염증 대책에 직면한 19 세기 동아시아의 개항장은 일본 / 조선 / 청국이라는 국가의 제도적 틀 (거류지제도 등) 보다도 각각의 개항장의 인적 네트워크 혹은 의료, 위생 인프라와 같은 개별 요인에 의해 규정되는 측면이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신종 선생님 (남개대학) 의 보고에서는, “역병

감염은 천명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전통적 요소와 그 영향력도 있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는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통해 생각난 것은 약 100년 전의 ‘스페인 독감’ 이었습니다. 올해 일본의 정월은 신형 코로나로 인해 전후 처음으로 하쓰모데(初詣) 인파가 격감했습니다만, 약 100년 전의 ‘스페인 독감’ 때는 많은 신사(神社)와 불각(仏閣)이 평상시처럼 하쓰모데를 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스페인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신사와 절에 기원하러 가는 사람들로 만원 전차’ 가 되는 현대사회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정부나 지식인들을 통해 마스크 착용과 밀집 회피 등 근대과학에 기초한 대책이 지시되고 있었습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것을 따르기 보다는 ‘밀(密) 집된 상태여도 신사와 절에 참배하러 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병이 들면 기도, 기원을 한다’ 는 전통적인 행동양식과 유유아(乳幼児) 사망률이 높았다는 점 등, ‘죽음’ 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의 가치관에서 보면 감염증으로 죽는다는 것은 과학에 기반하여 예방해야 할 일이겠지요. 하지만 근대과학, 의학이 널리 일반 서민들에게 ‘당연한 규범’ 으로 정착하기 전에는 이와는 다른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각각의 지역, 각각의 시대의 각각의 사람들에게 있어 ‘감염증으로 죽는다’ 는 것이 어떠한 의미였는지에 대해 현대사회의 선입견을 되도록 배제하고 바라보는 것이 역사학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의 보고에 대해 자유토론자인 저는 ‘동아시아 거류지에서 미디어를 통한 정보전달은 어떻게 기능했는가?’ 라는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왜냐면 토론자 중 한 분이신 시오데 히로유키 선생님께서 동아시아의 서로 다른 나라의 거류지(상하이-요코하마 등) 미디어들이 서로를 참조하고 있었고 또 논의에 있어서도 연환(連環)이 있었다는 것을 연구하셨기 때문입니다. 1886년의 콜레라와 같은 국경과 관계없이 퍼져나가는 감염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 바다 건너 다른 거류지의 정보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이치카와 선생님은 거류지 신문에 다른 나라 거류지의 감염증 정보가 실리는 일은 있었으나 산발적이었으며 오히려 영국 영사관의 정보 네트워크가 더 기능하고 있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19세기 감염증 대책의 역사는 ‘싫다고 해도 국사를 넘는 시야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회의 종료 후의 온라인 교류회는 동시통역 없이 ‘중국어 / 한국어 / 일본어’ 방(브레이크 아웃룸)으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방에 도중에 참석하여 최근에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한 한국어로 자기소개와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상은 이야기할 수 없었고 허무하게 옥쇄(玉碎) ... 결국 그 방에 계시던 일본어가 유창하신 선생님께서 통역해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통역 없이 회화를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선생님들과 서울과 요코하마(도쿄가 아니라 개항장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요코하마!)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필자가 한국어로 직접 입력)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주최자·사무국 여러분들, 3 개국어 (!) 의 벽을 넘어 교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분투해 주신 동시통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사 메일 매거진 「Kokushi Email Newsletter #30」 에서 전재)

저자경력

■ 박한민 (朴漢珉) / PARK Hanmin

한국근대사와 한일관계사를 전공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대학원에서 2017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동국대학교역사교과서연구소에서 2년 간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박사 후 연수과정(Post-Doc)을 밟았다. 일본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에서 외국인 방문연구원, 교토부립교토학·레키사이칸에서 교토학연구원을 역임하면서 자료수집과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는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조선과 일본의 조약 운영, 일본 관원의 조선 출장과 정탐활동, 근대 지식의 수용과 유통, 조일 양국인의 교류와 인식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이치카와 토모오 (市川 智生) / ICHIKAWA Tomoo

1976년생. 요코하마국립대학대학원 국제사회과학연구과 수료(학술 박사). 상해교통대학역사계, 나가사키대학 열대의학연구소를 거쳐 현재 오키나와국제대학 종합문화학부 준교수. 전공은 일본근대사, 의료사회사. 발표한 논저로는 「近代日本の開港場における伝染病流行と外国人居留地: 1879年「神奈川県地方衛生会」によるコレラ対策」(『史学雑誌』 제117집 제6호, 2008년), 「明治初期の伝染病流行と居留地行政——1870・71年横浜の天然痘対策」(『日本歴史』 제762호, 2011년), 永島剛·市川智生·飯島渉編『衛生と近代: ペスト流行にみる東アジアの統治・医療・社会』(法政大学出版局, 2017년) 등이 있다.

■ 위신중 (余新忠) / YU Xinzhong

저장 린안 출신으로 난카이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토대학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았다. 현재 난카이대학 역사학부 교수 겸 부학부장, 중국사회과학회 부회장 겸 비서장을 맡고 있다. 연구 분야는 중국의료사회문화사와 명청 사회사. 주요 저서로는 『청대 강남의 운역과 사회』, 『청대 위생 방역 시스템과 근대 변천』 등이 있다. 『역사연구』, Chinese Studies in History, 『동양사 연구』 등 간행물에 중국어·영어·일본어 논문 90여편 발표. 장강학자장려계획(长江学者奖励计划), 국가 백천만인재 프로젝트 등 국가급 인재 계획에 당선. 전국 우수 박사논문상, 국가 철학사회과학 문고상,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우수 성과상(1등, 2등)을 수상했다.

■ 김현선 (金賢善) / KIM Hyunsun

중국 질병사 전공, 동국대학교 학술문화원 HK연구교수로 재직 중. 2016년 중국 華中師範大學에서 “明清兩湖地區疫災與: 空間分布, 影響因素與社會對應” 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ArcGIS를 이용해 전염병의 지리적 분포 특징과 원인을 분석하여 질병사와 지리학의 만남을 시도했다. 역사시대 중국의 환경변화와 전염병 유행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 시오데 히로유키 (塩出 浩之) / SHIODE Hiroyuki

교토대 대학원 문학연구과 준교수. 전공은 일본근현대사, 일본정치사. 2004년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졸업, 박사(학술). 류큐대 법문학부 준교수, 동대학 교수를 거쳐 현직. 주된 연구성과는 저서로 『越境者の政治史』(名古屋大学出版会, 2015년) 등이 있다.

■ 친팡 (秦方) / QIN Fang

중국 수도사범대학 역사학원 준교수. 2005-2011년, 미네소타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2002-2005년 중국 남개대학 역사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Co-authored with Emily Bruce, “Our Girls Have Grown Up in the Family”: Educating German and Chinese Girls in the 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Modern Chinese History, vol. 1, 2016; Later the revised version was collected in A History of the Girl: Formation, Education, and Identity, edited by Mary O’ Dowd and June Purvis, Palgrave Macmillan, 2018, pp. 103-122 등의 연구성과가 있음.

제 5 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19 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 참가자 리스트

	성명 (로마자)	성명 (일본어)	성명 (한국어)	성명 (중국어)	소속 (한국어)
발표자					
1	Park Hanmin	朴 漢珉	박 한민	朴 汉珉	동북아역사재단
2	Ichikawa Tomoo	市川智生	이치카와 토모오	市川智生	오키나와국제대
3	Yu Xinzong	余 新忠	위 신중	余 新忠	남개대
지정토론자					
4	Kim Hyunsun	金 賢善	김 현선	金 贤善	명지대
5	Shiode Hiroyuki	塩出浩之	시오에 히로유키	盐出浩之	교토대
6	Qin Fang	秦 方	친 광	秦 方	수도사범대
패널리스트					
7	Aoyama Harutoshi	青山治世	아오야마 하루토시	青山治世	아세아대
8	Akashi Yasushi	明石 康	아카시 야스시	明石 康	전 유엔사무차장
9	Biao Yang	楊 彪	양 바오	杨 彪	화동사범대
10	Choi Joo-hee	崔 姪姬	최 주희	崔 姪姬	덕성여대
11	Chong Soonil	鄭 淳一	정 순일	郑 淳一	고려대
12	Duan Ruicong	段 瑞聰	뎬루이충	段 瑞聰	게이오대
13	Han Seunghoon	韓 承勳	한 승훈	韩 承勋	한국예술종합학교
14	Han Sungmin	韓 成敏	한 성민	韩 成敏	대전대
15	Hirayama Noboru	平山 昇	히라야마 노보루	平山 升	가나가와대
16	Huh Tae-koo	許 泰玖	허 태구	许 泰玖	가톨릭대
17	Kim Bokwang	金 甫尙	김 보광	金甫尙	가천대
18	Lee Myungmi	李 命美	이 명미	李 命美	경상대
19	Mukai Masaki	向 正樹	무카이 마사키	向 正树	도시사대
20	Okawa Makoto	大川 真	오카와 마코토	大川 真	추오대
21	Okubo Takeharu	大久保健晴	오쿠보 다케하루	大久保健晴	게이오대
22	Qi Meiqin	祁 美琴	치메이친	祁 美琴	인민대
23	Sun Weiguo	孫 衛国	쑤웨이궈	孙 卫国	남개대
24	Wang Wenlung	王 文隆	왕 윈룽	王 文隆	남개대
25	Yao Keisuke	八百啓介	야오 케이스케	八百启介	기타큐슈시립대
26	Yokkaichi Yasuhiro	四日市康博	유키카치 야스히로	四日市康博	쇼와여대
27	Zheng Jiexi	鄭 潔西	정 제시	郑 洁西	영파대
실행위원					
28	Cho Kwang	趙 珖	조 광	赵 珖	국사편찬위원회
29	Kim Kyongtae	金キョンテ	김 경태	金 囙泰	전남대
30	Li Enmin	李 恩民	리 언민	李 恩民	오비린대
31	Liu Jie	劉 傑	류 지에	刘 杰	와세다대
32	Mitani Hiroshi	三谷 博	미타니 히로시	三谷 博	아토미학원여자대
33	Mura Kazuaki	村 和明	무라 카즈아키	村 和明	도쿄대
34	Nam Kijeong	南 基正	남 기정	南 基正	서울대
35	Peng Hao	彭 浩	펑 하오	彭 浩	오사카시립대
36	Song Zhiyong	宋 志勇	송 즈용	宋 志勇	남개대
동시통역					
37	Ding Li	丁 莉	정 리	丁 莉	북경대
38	Song Gang	宋 剛	송 강	宋 剛	북경외국어대
39	Lee Hyeri	李ヘリ	이 헤리	李 惠利	한국외대
40	Ahn Younghee	安ヨンヒ	안 영희	安 暎姬	한국외대
41	Jin Danshi	金 丹実	김 단실	金 丹实	프리랜서
42	Piao Xian	朴 賢	박 현	朴 贤	교토대
번역					
43	Min Dong-yup	閔 東晔	민 동엽	闵 东晔	도쿄대
44	Chen Lu	陳 璐	첸 루	陈 璐	도쿄외대
45	Hong Yongil	洪 龍日	홍 용일	洪 龙日	도쿄대
사무국					
46	Imanishi Junko	今西淳子	이마니시 준코	今西淳子	아쓰미재단
47	Tsunoda Eiichi	角田英一	쓰노다 에이이치	角田英一	아쓰미재단
48	Nagai Ayumi	長井亜弓	나가이 아유미	长井亚弓	아쓰미재단
49	Miyake Aya	三宅 綾	미야케 아야	三宅 綾	아쓰미재단

SGRA レポート バックナンバーのご案内

- SGRA レポート01 設立記念講演録 「21世紀の日本とアジア」 船橋洋一 2001. 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02 CISV 国際シンポジウ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への挑戦：多様性の中に調和を求めて」
今西淳子、高 偉俊、F. マキト、金 雄熙、李 來賛 2001. 1. 15 発行
- SGRA レポート0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技術の創造」 畑村洋太郎 2001. 3. 15 発行
- SGRA レポート04 第1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の皆さんへ」 関 啓子、L. ビッヒラー、高 熙卓 200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05 第2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なかの新しい東アジア：経済協力をどう考えるべきか」
平川 均、F. マキト、李 鋼哲 200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06 投稿 「今日の留学」「はじめの一步」 工藤正司 今西淳子 2001. 8. 30 発行
- SGRA レポート07 第3回フォーラム講演録 「共生時代のエネルギーを考える：ライフスタイルからの工夫」
木村建一、D. バート、高 偉俊 2001. 10. 10 発行
- SGRA レポート08 第4回フォーラム講演録 「IT 教育革命：ITは教育をどう変えるか」
臼井建彦、西野篤夫、V. コストブ、F. マキト、J. スリスマンティオ、蔣 恵玲、楊 接期、
李 來賛、斎藤信男 2002. 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09 第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と民族主義：対話と共生をキーワードに」
ペマ・ギャルポ、林 泉忠 2002. 2. 28 発行
- SGRA レポート10 第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とイスラーム：文明間の対話のために」
S. ギュレチ、板垣雄三 2002. 6. 15 発行
- SGRA レポート11 投稿 「中国はなぜWTOに加盟したのか」 金香海 2002. 7. 8 発行
- SGRA レポート12 第7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環境診断：地球の砂漠化を考える」
建石隆太郎、B. プレンサイン 2002. 10. 25 発行
- SGRA レポート13 投稿 「経済特区：フィリピンの視点から」 F. マキト 2002. 12. 12 発行
- SGRA レポート14 第8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中の新しい東アジア」 + 宮澤喜一元総理大臣をお迎えして
フリーディスカッション
平川 均、李 鎮奎、ガト・アルヤ・プートゥラ、孟 健軍、B. ヴィリエガス 日本語版2003. 1. 31 発行、
韓国語版2003. 3. 31 発行、中国語版2003. 5. 30 発行、英語版2003. 3. 6 発行
- SGRA レポート15 投稿 「中国における行政訴訟—請求と処理状況に対する考察—」 呉東鎬 2003. 1. 31 発行
- SGRA レポート16 第9回フォーラム講演録 「情報化と教育」 苑 復傑、遊間和子 2003. 5. 30 発行
- SGRA レポート17 第10回フォーラム講演録 「21世紀の世界安全保障と東アジア」
白石 隆、南 基正、李 恩民、村田晃嗣 日本語版2003. 3. 30 発行、英語版2003. 6. 6 発行
- SGRA レポート18 第11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研究：国境を越える取り組み」 高橋 甫、貫戸朋子 2003. 8. 30 発行
- SGRA レポート19 投稿 「海軍の誕生と近代日本—幕末期海軍建設の再検討と『海軍革命』の仮説」 朴 榮濬
2003. 12. 4 発行
- SGRA レポート20 第12回フォーラム講演録 「環境問題と国際協力：COP3の目標は実現可能か」
外岡豊、李海峰、鄭成春、高偉俊 2004. 3. 10 発行
- SGRA レポート21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 「アジア共同体構築に向けての日本及び韓国の役割について」2004. 6. 30 発行
- SGRA レポート22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民族紛争—どうして起こるのか どう解決するか」 明石康 2004.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23 第1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
宮島喬、イコ・プラムティオノ 2004. 2. 25 発行
- SGRA レポート24 投稿 「1945年のモンゴル人民共和国の中国に対する援助：その評価の歴史」 フスレ 2004. 10. 25 発行

- SGRA レポート25 第14回フォーラム講演録 「国境を越えるE-Learning」
斎藤信男、福田収一、渡辺吉裕、F. マキト、金 雄熙 2005. 3. 31 発行
- SGRA レポート26 第1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この夏、東京の電気は大丈夫？」 中上英俊、高 偉俊 2005. 1. 24 発行
- SGRA レポート27 第1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軍事同盟の過去・現在・未来」
竹田いさみ、R. エルドリッチ、朴 榮濬、渡辺 剛、伊藤裕子 2005. 7. 30 発行
- SGRA レポート28 第17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 地球市民の義務教育-」
宮島 喬、ヤマグチ・アナ・エリーザ、朴 校熙、小林宏美 2005. 7. 30 発行
- SGRA レポート29 第18回フォーラム・第4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韓流・日流：東アジア地域協力におけるソフトパワー」 李 鎮奎、林 夏生、金 智龍、道上尚史、木宮正史、李 元徳、金 雄熙 2005. 5.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0 第19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文化再考-自由と市民社会をキーワードに-」
宮崎法子、東島 誠 2005. 12.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1 第20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経済統合：雁はまだ飛んでいるか」
平川 均、渡辺利夫、トラン・ヴァン・トウ、範 建亭、白 寅秀、エンクバヤル・シャグダル、F. マキト
2006. 2.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2 第21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人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留学生-」
横田雅弘、白石勝己、鄭仁豪、カンピラバープ・スネート、王雪萍、黒田一雄、大塚晶、徐向東、
角田英一 2006. 4.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3 第22回フォーラム講演録 「戦後和解プロセスの研究」 小菅信子、李 恩民 2006. 7.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4 第2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人と宗教：宗教って何なの？」
島蘭 進、ノルマン・ヘイヴンズ、ランジャナ・ムコパディヤヤ、ミラ・ゾンターク、
セリム・ユジェル・ギュレチ 2006.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5 第24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ごみ処理と国境を越える資源循環～私が分別したごみはどこへ行くの？～」
鈴木進一、間宮 尚、李 海峰、中西 徹、外岡 豊 2007. 3.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6 第25回フォーラム講演録 「ITは教育を強化できるか」
高橋富士信、藤谷哲、楊接期、江蘇蘇 2007.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7 第1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in 北京講演録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若者の未来と日本語』」
池崎美代子、武田春仁、張 潤北、徐 向東、孫 建軍、朴 貞姫 2007. 6.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8 第6回日韓フォーラムin 葉山講演録 「親日・反日・克日：多様化する韓国の対日観」
金 範洙、趙 寛子、玄 大松、小針 進、南 基正 2007. 8. 31 発行
- SGRA レポート39 第2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思想史～私たちの出会いと将来～」
黒住 真、韓 東育、趙 寛子、林 少陽、孫 軍悦 2007. 1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40 第27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アジアにおける外来種問題～ひとの生活との関わりを考える～」
多紀保彦、加納光樹、プラチャー・ムシカシントン、今西淳子 2008. 5. 30 発行
- SGRA レポート41 第28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いのちの尊厳と宗教の役割」
島蘭進、秋葉悦子、井上ウイマラ、大谷いづみ、ランジャナ・ムコパディヤヤ 2008. 3. 15 発行
- SGRA レポート42 第2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in 北京&新疆講演録 「黄土高原緑化協力の15年—無理解と失敗から相互理解と信頼へ—」 高見邦雄 日本語版、中国語版 2008. 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4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主義」 平川均 2008. 3. 1 発行
- SGRA レポート44 第29回フォーラム講演録 「広告と社会の複雑な関係」 関沢 英彦、徐 向東、オリガ・ホメンコ
2008. 6. 25 発行

- SGRA レポート45 第30回フォーラム講演録 「教育における『負け組』をどう考えるか～日本、中国、シンガポール～」佐藤香、山口真美、シム・チュン・キャット 2008. 9. 20発行
- SGRA レポート46 第31回フォーラム講演録 「水田から油田へ：日本のエネルギー供給、食糧安全と地域の活性化」東城清秀、田村啓二、外岡 豊 2009. 1. 10発行
- SGRA レポート47 第32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オリンピックと東アジアの平和繁栄」清水 諭、池田慎太郎、朴 榮濬、劉傑、南 基正 2008. 8. 8発行
- SGRA レポート48 第3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延辺&北京講演録 「一燈やがて万燈となる如くーアジアの留学生と生活を共にした協会の50年」工藤正司 日本語版、中国語版 2009. 4. 15発行
- SGRA レポート49 第3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経済統合が格差を縮めるか」東 茂樹、平川 均、ド・マン・ホーン、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09. 6. 30発行
- SGRA レポート50 第8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日韓の東アジア地域構想と中国観」平川 均、孫 洌、川島 真、金 湘培、李 鋼哲 日本語版、韓国語 Web 版 2009. 9. 25発行
- SGRA レポート51 第3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テレビゲームが子どもの成長に与える影響を考える」大多和直樹、佐々木 敏、渋谷明子、ユ・ティ・ルイン、江 蘇蘇 2009. 11. 15発行
- SGRA レポート52 第3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市民社会と21世紀の課題」宮島 喬、都築 勉、高 熙卓、中西 徹、林 泉忠、ブ・ティ・ミン・チイ、劉 傑、孫 軍悦 2010. 3. 25発行
- SGRA レポート53 第4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上海講演録 「世界的課題に向けていま若者ができること～TABLE FOR TWO～」近藤正晃ジェームス 2010. 4. 30発行
- SGRA レポート54 第37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エリート教育は国に『希望』をもたらすか：東アジアのエリート高校教育の現状と課題」玄田有史 シム・チュンキャット 金 範洙 張 健 2010. 5. 10発行
- SGRA レポート55 第38回フォーラム講演録 「Better City, Better Life ～東アジアにおける都市・建築のエネルギー事情とライフスタイル～」木村建一、高 偉俊、Mochamad Donny Koerniawan、Max Maquito、Pham Van Quan、葉 文昌、Supreedee Rittironk、郭 榮珠、王 劍宏、福田展淳 2010. 12. 15発行
- SGRA レポート56 第5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フフホト講演録 「中国の環境問題と日中民間協力」第一部（北京）：「北京の水問題を中心に」高見邦雄、汪 敏、張 昌玉 第二部（フフホト）：「地下資源開発を中心に」高見邦雄、オンドロナ、ブレンサイン 2011. 5. 10発行
- SGRA レポート57 第39回フォーラム講演録 「ポスト社会主義時代における宗教の復興」井上まどか、ティムール・ダダバエフ、ゾントーク・ミラ、エリック・シッケタンツ、島蘭 進、陳 継東 2011. 12. 30発行
- SGRA レポート58 投稿 「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論への一試論」平川 均 2011. 2. 15発行
- SGRA レポート59 第10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1300年前の東アジア地域交流」朴 亨國、金 尚泰、胡 潔、李 成制、陸 載和、清水重敦、林 慶澤 2012. 1. 10発行
- SGRA レポート60 第40回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の少子高齢化問題と福祉」田多英範、李 蓮花、羅 仁淑、平川 均、シム・チュンキャット、F・マキト 2011. 11. 30発行
- SGRA レポート61 第41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共同体の現状と展望」恒川恵市、黒柳米司、朴 榮濬、劉 傑、林 泉忠、ブレンサイン、李 成日、南 基正、平川 均 2012. 6. 18発行

- SGRA レポート62 第6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フフホト講演録
「Sound Economy ～私がミナマタから学んだこと～」 柳田耕一
「内モンゴル草原の生態系：鉱山採掘がもたらしている生態系破壊と環境汚染問題」 郭偉
2012. 6. 15 発行
- SGRA レポート64 第43回SGRAフォーラム in 蓼科 講演録「東アジア軍事同盟の課題と展望」
朴榮濬、渡辺 剛、伊藤裕子、南 基正、林 泉忠、竹田いさみ 2012.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65 第44回SGRAフォーラム in 蓼科 講演録「21世紀型学力を育むフューチャースクールの戦略と課題」
赤堀侃司、影戸誠、曹圭福、シム・チュンキャット、石澤紀雄 2013. 2. 1 発行
- SGRA レポート66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日英戦後和解（1994-1998年）」（日本語・英語・中国語） 沼田貞昭
2013.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67 第12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太平洋時代における東アジア新秩序の模索」
平川 均、加茂具樹、金 雄熙、木宮正史、李 元徳、金 敬黙 2014. 2. 25 発行
- SGRA レポート68 第7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講演録「ボランティア・志願者論」
（日本語・中国語・英語） 宮崎幸雄 2014. 5. 15 発行
- SGRA レポート69 第45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紛争の海から平和の海へー東アジア海洋秩序の現状と展望ー」
村瀬信也、南 基正、李 成日、林 泉忠、福原裕二、朴 榮濬 2014.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70 第46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インクルーシブ教育：子どもの多様なニーズにどう応えるか」
荒川 智、上原芳枝、ヴィラーグ ヴィクトル、中村ノーマン、崔 佳英 2015.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71 第47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科学技術とリスク社会ー福島第一原発事故から考える科学技術
と倫理ー」 崔 勝媛、島 蘭 進、平川秀幸 2015. 5. 25 発行
- SGRA レポート72 第8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近代日本美術史と近代中国」
佐藤道信、木田拓也 2015.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73 第14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第48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経済のダイナミズムー
物流を中心に」 李 鎮奎、金 雄熙、柳原英資、安 秉民、ドマンホーン、李 鋼哲 2015.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74 第49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円卓会議「日本研究の新しいパラダイムを求めて」
劉 傑、平野健一郎、南 基正 他15名 2016. 6. 20 発行
- SGRA レポート75 第50回SGRAフォーラム in 北九州講演録「青空、水、くらしー環境と女性と未来に向けて」
神崎智子、斉藤淳子、李 允淑、小林直子、田村慶子 2016. 6. 27 発行
- SGRA レポート76 第9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フフホト&北京講演録「日中200年ー文化史からの再検討」
劉 建輝 2020.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77 第15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これからの日韓の国際開発協力ー共進化アーキテクチャ
の模索」 孫赫相、深川由紀子、平川均、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16.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78 第51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今、再び平和についてー平和のための東アジア知識人連帯を考
えるー」 南基正、木宮正史、朴榮濬、宋均營、林泉忠、都築勉 2017. 3. 27 発行
- SGRA レポート79 第52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
劉傑、趙珧、葛兆光、三谷博、八百啓介、橋本雄、松田麻美子、徐静波、鄭淳一、金キョンテ
2017. 6. 9 発行
- SGRA レポート80 第16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日中韓の国際開発協力ー新たなアジア型モデルの模索ー」
金雄熙、李恩民、孫赫相、李鋼哲 2017. 5. 16 発行
- SGRA レポート81 第56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人を幸せにするロボットー人とロボットの共生社会をめざして第
2回ー」 稲葉雅幸、李周浩、文景楠、瀬戸文美 2017.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82 第57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第2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蒙古襲来と13世紀モンゴル帝国のグローバル化」葛兆光、四日市康博、チョグト、橋本雄、エルデニバートル、向正樹、孫衛国、金甫枕、李命美、ツェレンドルジ、趙阮、張佳 2018.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83 第58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を結ぶ? 『一帯一路』の地政学」朱建栄、李彦銘、朴栄濬、古賀慶、朴准儀 2018. 11. 16 発行
- SGRA レポート84 第11回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からみた中国美術史学」塚本磨充、呉孟晋 2019. 5. 17 発行
- SGRA レポート85 第17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北朝鮮開発協力：各アクターから現状と今後を聞く」孫赫相、朱建栄、文旻鍊 2019. 11. 22 発行
- SGRA レポート86 第59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第3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7世紀東アジアの国際関係—戦乱から安定へ—」三谷博、劉傑、趙琬、崔永昌、鄭潔西、荒木和憲、許泰玖、鈴木開、祁美琴、牧原成征、崔姪姫、趙軼峰 2019. 9. 20 発行
- SGRA レポート87 第61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日本の高等教育のグローバル化!?!」沈雨香、吉田文、シン・ジョンチョル、関沢和泉、ムラット・チャクル、金範洙 2019. 3. 26 発行
- SGRA レポート88 第12回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日中映画交流の可能性」刈間文俊、王衆一 2020. 9. 25 発行
- SGRA レポート89 第62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再生可能エネルギーが世界を変える時…? —不都合な真実を超えて」ルウェリン・ヒューズ、ハンス=ヨゼフ・フェル、朴准儀、高偉俊、葉文昌、佐藤健太、近藤恵 2019. 11. 1 発行
- SGRA レポート90 第63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第4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東アジア』の誕生—19世紀における国際秩序の転換—」三谷博、大久保健晴、韓承勳、孫青、大川真、南基玄、郭衛東、塩出浩之、韓成敏、秦方 2020.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91 第13回SGRA-Vカフェ講演録「ポスト・コロナ時代の東アジア」林 泉忠 2020.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92 第13回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国際日本学としてのアニメ研究」大塚英志、秦 剛、古市雅子、陳 夔 2021.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93 第14回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東西思想の接触圏としての日本近代美術史再考」稲賀繁美、劉 曉峰、塚本磨充、王 中忱、林 少陽 2021. 6. 18 発行

■ レポートご希望の方は、SGRA 事務局 (Tel : 03-3943-7612 Email : sgra@aisf.or.jp) へご連絡ください。

SGRA 레포트 No.0094 (한국어판)

제 65회 SGRA-V 포럼

제 5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19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

편집·발행 (공익재단)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 (SGRA)
〒112-0014 東京都文京区関口3-5-8
Tel: 03-3943-7612 Fax: 03-3943-1512
SGRA 홈페이지: <http://www.aisf.or.jp/sgra/>
전자 메일: sgra@aisf.or.jp

발행일 2021년 12월 15일
발행 책임자 이마니시 준코 (今西 淳子)
한국어판 감수 윤 재언 (尹 在彦)
인쇄 (株) 平河工業社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본지 기사에 대한 문의나 인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락주세요.
©Sekiguchi Global Research Association Copying is Prohibited. For inquiries or quotes, please contact us.

한국 · 일본 · 중국 간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19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

